SK Telecom
110-110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99
tel: 02-2121-2114
http: www.sktelecom.co.kr

2001사회공헌활동백서

SK Telecom

SK Telecom Community Relations White Paper

SK Telecom Community Relations White Paper 2001

2001사회공헌활동백서

소외 없는 정보화 세상 – 활짝 열린 더 큰 세상을 위해 SK텔레콤이 함께합니다

SK Telecom

“열려라 더 큰 세상”

SK텔레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청소년들, 특히 장애 청소년들과 소년소녀가장 등 정보 소외 영역에 남아 있는 청소년들에게 정보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쟁력을 배양하고, 인터넷을 통해 더 큰 세상을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환경적 장애를 뛰어넘어 모두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공동체 –
바로 SK텔레콤이 그리는 21세기입니다.

SK Telecom Community Relations White Paper 2001

발간사

모두가 정보의 주인이 되는 세상!
SK텔레콤이 만들어 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보'라는 매개를 통해 수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입니다. 디지털과 정보화로 대표되는 21세기는 우리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로 이끌고 있으며, 정보의 끝없는 재생산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보야말로 21세기 초고속 정보화 시대의 발전을 선도하는 가장 궁극적인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는 신체적 장애와 환경적 장애 등 여러 이유로 정보화의 물결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보에 대한 갈망과 욕구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교육과 장비의 부재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의 소외 현상은 결과적으로 지역간 · 계층간 정보 격차(Digital Divide)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에 SK텔레콤은 기업시민정신(Corporate Citizenship)을 바탕으로 '열려라 더 큰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펼침으로써 소외 없는 정보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 청소년과 농어촌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등 정보화 소외 계층에 PC를 보급해 온 것은 물론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 등을 통해 정보화 활용 능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주체로서, 기업 활동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욱 진일보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에 주체적인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들이 스스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백서는 2001년 한 해 동안 SK텔레콤이 수행한 사회공헌활동을 정리 · 수록한 것으로, SK텔레콤이 지향하는 사회공헌활동의 방향과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백서를 통해 따뜻한 사회를 위한 SK텔레콤의 노력들이 올바르게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고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정보의 주인이 되는 정보화 시대! SK텔레콤이 꿈꾸는 이상적인 미래입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더욱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여 더욱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2년 6월 대표이사 사장 표문수

표 문 수

CONTENTs

002 사회공헌활동 슬로건

004 발간사

008 사진으로 본 2001 SK텔레콤 사회공헌활동

제2부 2001년 사회공헌활동

제1장 장애 청소년 정보화 사업

080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 대회

094 장애 청소년 인터넷 서바이벌 대회

108 전국 특수학교 정보화 순회 교육

110 전시 관련 장애 청소년 초청 행사

제2장 소년소녀가장 정보화 사업

116 소년소녀가장 PC 지원 사업

118 소년소녀가장 사랑 희망 캠프

134 소년소녀가장 사랑의 교실

제3장 국제 사회공헌활동

140 베트남 얼굴 기형 어린이 무료 시술

142 사랑의 집짓기 운동 지원

143 몽골 소녀 수술비 지원

제4장 기타 사회공헌활동

146 소외 계층 무료 이동 진료 지원

148 011 행복펀드 조성 및 집행

150 농어촌 지원 사업

152 장애인 전자 도서관 구축 지원

153 김장 배추 이웃돕기

154 소외 계층 정보화 PC 지원

156 문화 · 예술/학술/체육 사업 지원

158 지사별 자원봉사활동

제3부 2001 사회공헌활동 상세 자료

166 전국 특수학교 명단

170 SK텔레콤 '사랑의 교실' 개설 학교 명단

174 농어촌 벽지 초등학교 정보화 무료 교육 명단

182 문화 · 예술/학술/체육 사업 지원

제1부 열려라 더 큰 세상

040 SK텔레콤 사회공헌활동 역사

047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바란다

052 모범적인 사회공헌활동을 기대하며

060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현주소

SK Telecom Community Relations White Paper 2001

사진으로 본 2001

SK텔레콤 사회공헌활동

장애 청소년 정보 검색 대회

장애 청소년 인터넷 서바이벌 대회

소년소녀가장 사랑 희망 캠프

사랑의 교실

농어촌 벽지 초등학교 정보화 무료 순회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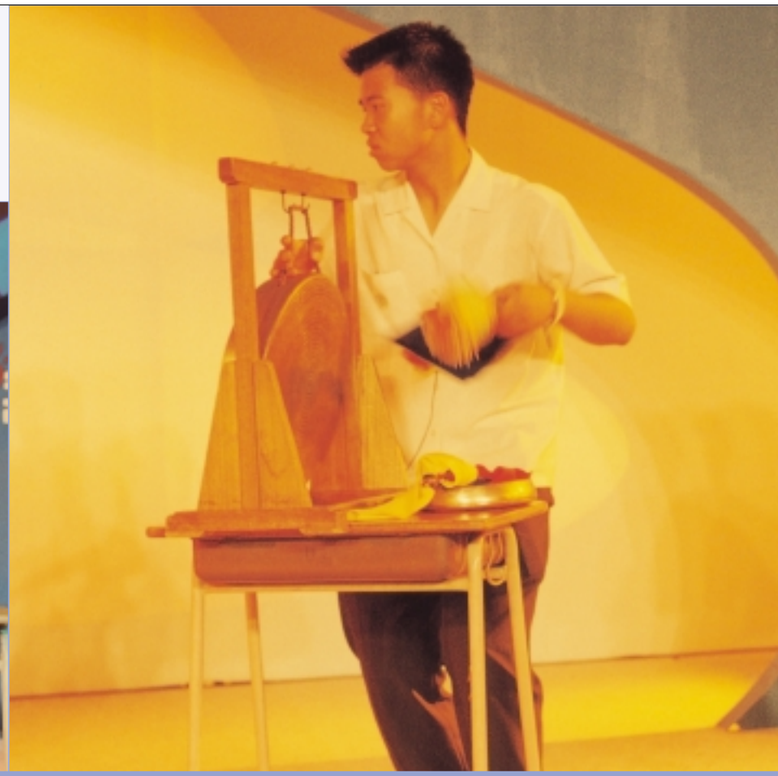
지사별 자원봉사활동

한 발, 한 발 세상을 향해

전국 89개 특수학교에서 참가한 261명의 학생들. 비록 특수 모니터와 키보드, 장애인 전용 프로그램, 점자 문제지 등을 이용하고 때로는 수화 통역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가는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친구와 팀워크를 이루어 해냈다는 뿌듯함,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자부심! 올해로 3회째인 정보 검색 대회의 승자는 참가자 모두였다.

다 함께, 정보의 바다로!

SK텔레콤 표문수 사장의 개식사와 함께 시작된 2001 장애 청소년 정보 검색 대회. 무작정 정보의 바다로 뛰어들기에는 장애라는 걸림돌이 버거웠던 청소년들 – 그들이 정보화 능력을 바탕으로 장애 극복의 의지를 세우고 희망찬 내일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SK텔레콤은 기꺼이 길라잡이로 나섰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며

참가자들은 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풍선으로 만든 푸들이랑 인사도 나누고, 캐릭터 인형으로 분장한 자원봉사자들과 기념사진도 찍으면서 오늘의 즐거움을 잊지 못할 추억의 한 장면으로 새겨 두었다.

열려라 더 큰 세상이여!

서울삼성학교의 난타 교실 공연은 청각 장애로 가로막혔던 벽을 뛰어넘어 새 세상으로 달려가는 희망의 몸짓임에 분명했다.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전하는 완벽한 리듬감! DMC 댄스 공연과 함께 펼쳐진 축하 공연 한마당은 감격과 격려의 박수 소리로 후끈 달구어졌다.

입상의 기쁨을 안은 영광의 얼굴들 –

대상을 탄 서울삼성학교의 김현인, 신성철 학생과 지도를 해주신 송영준 선생님 그리고 시각, 정신, 지체, 청각 등 각 분야별 수상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아도, 클릭 한 번 할 때마다 제멋대로 움직이는 팔다리와 싸움을 하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가슴을 활짝 펴고, 세계의 주인공으로!

대상과 분야별 금상을 수상한 학생과 지도 교사, 학부모에게 해외 연수의 기회가 주어졌다. 8월 16일부터 디즈니랜드와 헐리우드를 방문하고, 그리피스 전망대를 관람하는 등 7박 8일 동안 다양한 세상을 접한 이들은 매일 매일의 새로운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올려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큼 자라났다.

장애 청소년 인터넷 서바이벌 대회

사이버 세상을 내 삶의 도구로!

인터넷만을 활용해서 4박 5일의 생활을 해내야 하는 인터넷 서바이벌 대회. 1, 2차 예선에 이어 다시 본선을 치르는 치열한 경기를 통해 장애 청소년들에게 자신감과 패기, 장애 극복의 도전 정신을 심어 주려는 SK텔레콤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된 행사였다.

자립의 첫걸음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

생활 필수품 구입에서부터 티켓 예매, 나만의 뮤직 앨범 만들기 등 주어진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때마다 얼굴에 떠오른 미소 – 그것은 바로 지금껏 그들을 옥죄어 왔던 장애의 불편함 대신 앞으로 누리게 될 더 큰 자유의 감미로움이었다.

신체의 장애가 삶의 장애가 될 수는 없는 법!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이메일, 채팅, 넷츠고 생중계 등을 통해 더 많은 친구를 만나고 더 넓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마음의 벽도 허물고 서로에게 가졌던 편견도 날려 버린 뒤 기념 사진 한 장!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인터넷 서바이벌 대회에 앞서 글로벌케어 전문 의료 지원 팀은 참가자들의 건강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안전 요원들 역시 24시간 내내 함께하며 만약에 있을지 모를 위급 사항에 대비했다. 항상 밝은 웃음을 잃지 않는 참가자들을 보며 이들이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 –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 도와 주는 따스함, 이 사랑이 모일 때 세상은 한층 더 살 맛 나는 곳이 되리라는 믿음이라는 사실이다.

소년소녀가장 사랑 희망 캠프

'인터넷으로 배우는 테마 여행' 을 떠나볼까?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첫발을 디딘 사이버 세상 – 윈도우 다루기를 비롯해 이메일과 채팅까지 무한한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니 저 멀리서 보물섬이 손짓을 한다.

웃음 하나에 희망 한 아름씩

모처럼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짐을 벗어 던진 소년소녀가장들 – 마음껏 인라인 스케이트도 타고 놀이 기구도 타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그들의 얼굴에는 그동안 팍팍했던 세상사에 대한 아쉬움은 사라지고 어느새 내일의 희망이 살포시 피어올랐다.

우린 모두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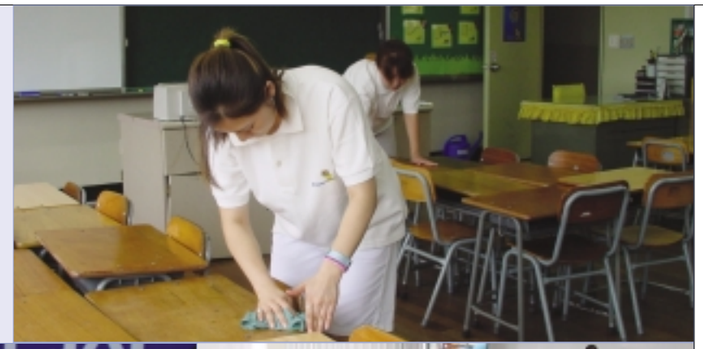
캠프의 마지막 날 밤, 모두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배웠던 댄스 실력을 겨루어 보고 각종 게임으로 승자도 가리며 구김살없는 웃음꽃을 활짝 피웠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 지난 3박 4일을 되돌아보며 부족했던 일은 반성하고 즐거웠던 일은 추억 속에 담아둔 시간. 그러나 헤어짐의 아쉬움은 감출 길 없어 가녀린 촛불 따라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기억할 거지? 오늘 이 시간을 …

세상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깨달음에 더욱 행복했던 캠프의 마지막 날. 함께 뛰고 달리며 다시금 다짐한다.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서로의 아픔을 같이하고 서로의 기쁨에 같이 즐거워하자고.



사랑을 배우는 교실

방학이 반갑지 않은 아이들 – 배고픔을 혼자서 달래야 하는 결식 아동들에게 방학은 고통의 시간일 뿐, 더 이상 즐거움의 시간일 수 없음에 SK텔레콤은 사랑의 교실을 열었다. 더 이상 방치된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우리, 함께 해요!

온종일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아이들에게 사이버 세상은 또 다른 별천지. 사랑의 교실은 보호자를 대신하는 든든한 이웃으로, 정보화 세상을 소개하는 한편 출석과 생활 지도까지 맡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임을 묵묵히 해내고 있다.

농어촌 벽지 초등학교 정보화 무료 순회 교육

소외 없는 사이버 세상을 위해!

결코 지역차가 정보화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신념으로 SK텔레콤은 농어촌 벽지 학교 정보화 무료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의 PC 지원에 이어 활용법 강의와 무상 점검까지 – 정보화 세상의 디딤돌이 되려는 SK텔레콤의 행보에는 쉼표가 없다.

전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이웃 사랑!

SK텔레콤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지원을 넘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행복 핸드폰줄 판매와 행복런닝 페스티벌 그리고 고객의 1통화당 1원씩 적립하는 011 해피콜 등 011 행복펀드 행사는 고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그 의의가 더욱 뜻깊다.

나누는 곳에 참 행복이 …

SK텔레콤은 사회 소외 계층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600여 명의 자원봉사단, 11개 봉사 그룹과 함께 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확산 운동을 근간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SK텔레콤의 바람이다.

SK텔레콤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그 내용을 광고 등의 홍보 매체와 연계하여 캠페인화함으로써 기업 이미지의 제고는 물론 전국민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보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전달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한 SK텔레콤의 광고 캠페인은 광고 분야의 수많은 수상을 휩쓸며 그 노력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제1부

1 열려라 더 큰 세상

- SK텔레콤 사회공헌활동 역사
-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바란다
- 모범적인 사회공헌활동을 기대하며
-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현주소

SK텔레콤 사회공헌활동 역사

SK텔레콤은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사회 곳곳의 소외 계층에게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해 왔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정보 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열려라 더 큰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확산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다.

사회공헌활동 – 목적과 가능성의 제시

SK텔레콤은 일찍부터 독자적인 테마를 설정하고 이에 투자와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기부와 자선 그리고 봉사활동을 사회공헌활동의 전부로만 생각하던 국내의 여타 기업들과는 차별화되는 점으로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과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는 한편 무엇이 기업의 의무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이렇듯 SK텔레콤이 펼쳐온 사회공헌활동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테마형의 활동이었다는 점 외에도 그 목적성과 당위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한 조사와 준비를 통해 정말 필요한 부분을 찾아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97년 학원가의 '왕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SK텔레콤은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 사회적 주목을 받았으며 성과 면에서도 상당한 실적을 쌓을 수 있었다.

또한 SK텔레콤은 국적을 초월한 사랑의 실천으로 '베트남 얼굴 기형 어린이 무료 시술'을 실시하고 있다. '베트남 어린이에게 웃음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안면 기형의 고통을 겪고 있는 베트남 어린이들에게 무료 성형 수술을 해줌으로써 새 얼굴을 찾아주는 이 사업을 위해, SK텔레콤은 매년 의약품과 의료 장비 일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미 1250명의 베트남 꿈나무들이 밝은 미래를 되찾을 수 있었다.

이후 소년소녀가장들로 관심을 확대한 SK텔레콤은, 그들에게 경제적 지원보다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주기 위해 1998년부터 'SK텔레콤 사랑 희망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생활고에 지쳐 있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꿈과 사랑 그리고 웃음이 넘치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올바른 정서를 함양하도록 돕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사랑 희망 캠프는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테마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키우는 기회를 제

공하고,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또한 캠프 기간 동안 어려운 생활 환경 속에서 자칫 관리에 소홀했을 소년소녀가장들의 건강을 고려, 민간 무료 의료 봉사 기구인 '글로벌케어' 의 전문 의료진으로부터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 학습을 통해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성과 자신감을 키우도록 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세상의 따뜻함을 일깨워 주고 있는 사랑 희망 캠프는 마음의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는 의미 깊은 사랑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보 소외가 없는 세상을 위하여!

SK텔레콤은 1999년, 그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혀 그들의 자립과 장애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을 시작함으로써 사회공헌활동에 있어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SK텔레콤 장애 청소년 정보 검색 대회' 는 이런 변화의 일환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정보화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정보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대표적인 정보 소외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 청소년들에게 정보화 교육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큰 행사이다.

정보 검색 대회가 시작된 1999년이 SK텔레콤 사회공헌활동의 전환기였다면 '열려라 더 큰 세상'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 2000년도는 그 체계가 구축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정보 검색 대회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실시하는 한편 장애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길러주기 위해 '인터넷 서바이벌 대회' 를 새롭게 기획 · 개최하였다. 또한 '전국 특수학교 정보화 순회 교육' 과 '전국 특수학교 홈페이지 무료 구축 사업' 을 펼치는 등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정보화 사업' 과 '농어촌 벽지 초등학교 무료 순회 교육' 등의 정보화 사업을 통해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확산에도 힘썼다.

이외에도 자사 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개인이나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켰다. 2000년도를 기점으로 SK텔레콤은 정보 소외 계층을 비롯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까지 도움의 손길을 펼침으로써 사회공헌활동의 깊이와 체계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SK텔레콤 2001년도 사회공헌활동

새 천년의 시작인 2001년은 SK텔레콤의 사회공헌활동이 기본적인 골격 위에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는 시기다. 이미 지난 활동을 통해 축적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이며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펼칠 수 있게 되었고 행사의 운영 면에서도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인터넷 서바이벌 대회의 경우 2000년에는 독립적으로 72시간을 생활해 내도록 기획되었으나 2001년에는 참가자들이 충분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100시간으로 늘려 진행하였다. 또한 최고급 PC를 갖추고 인터넷 접속 속도도 최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그리고 운영 요원이 24시간 항시 대기하도록 함으로써 참가자와 보호자들이 안전 사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2001년 SK텔레콤은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외에 지역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사회공헌활동의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원봉사활동이다. 600여 명의 임직원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SK텔레콤 자원봉사단은 떠들썩하게 드러내는 대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 곁에서 언제나 따뜻함을 전하는 사랑의 전령사 역할을 충실히 해냄으로써 SK텔레콤 사회공헌활동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지역 사회 속에서의 공존공생을 이룩해 가고 있다.

자원봉사를 자처한 임직원들은 바쁜 일과 속에서도 주말이나 연휴를 이용해 주변의 불우 이웃이나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 사회별로 꾸준하고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김장 배추 이웃돕기' 나 '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등의 활동은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기업 자원봉사활동의 바람직한 모델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가이드북」 을 제작하고, 자원 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활동이 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도모하고 있다.

2001년 SK텔레콤의 사회공헌활동이 높이 평가되는 또 다른 이유는 단발적인 이벤트에 만족하는 대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특수학교와 농어촌 벽지 초등학교,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PC를 비롯한 정보화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이와 함께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무료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1년에는 단순한 PC 교육뿐 아니라 지급된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관리법까지 함께 교육함으로써 정보 관련 문제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SK텔레콤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테마' 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발전

시켜 체계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사회를 바라보는 SK텔레콤의 따뜻한 시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즉 모든 기업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며 사회의 문제 해결을 선도해 나가는 '투철한 책임 의식을 지닌 진정한 이웃' 이 되어야 한다는 SK텔레콤의 신념이 이 모든 성과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SK텔레콤은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확산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며 또한 새로운 테마의 설정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으로서 사회에 대해 갖는 의무를 충실히 실천하며 SK텔레콤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바란다

이강현 (볼런티어21 소장)

· IYV 2001 한국 위원회 집행 위원장
· 미국 전국자원봉사센터 자문 위원
· 사단법인 볼런티어21 소장
· 성공회대 겸임 교수
· 저서 〈당신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공저)〉, 〈공동체건설(역)〉,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기획과 관리를 위한 101가지 아이디어(역)〉, 〈미국 자원봉사의 유래와 현황(공저)〉 외 다수

계획적인 프로그램의 시행

SK텔레콤이 '열려라 더 큰 세상' 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열의와 창의를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자원봉사단' 을 창단하고 기업 사회공헌의 지평을 넓힌 것은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늦은 감도 없지는 않지만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일 뿐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주로 금일봉 하사와 기념 촬영으로 끝났으나 최근에는 기업의 경영 전략에 통합되어 기업의 고유 활동과 관련된 사회공헌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시민의식'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투자'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 참여' 차원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보다 발전된 모습을 띠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기업은 초일류냐 아니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비도덕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SK텔레콤의 사회공헌활동은 치밀한 계획과 정밀한 검토 및 평가가 수반된 프로그램이기를 바란다.

특히 임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 사회에의 참여는 기부와 함께 이루어질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공헌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

시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SK텔레콤의 경우 이미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업(業)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매뉴얼을 발간하고 장애인 복지 시설에 배포하는 등의 활동은 틈새 시장 공략을 겸한 매우 바람직한 투자이자 가치있는 사회공헌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공헌활동의 출발점을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 로 삼은 것은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중요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보다는 '시급한 문제' 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면 자칫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게 되고 문제 해결 방법도 비효율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 해결 접근 방법에 있어서도 지역 사회 단체들과의 파트너십 형성보다는 기업이 단독으로 직접 해결해 나가고자 하거나 혹 파트너십을 형성하더라도 직접 서비스 전달 단체하고만 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슈 제기와 대변(advocacy) 활동을 하는 시민 단체나 교육 및 조직화와 인프라 구축이 주목적인 임파워링 활동을 하는 단체들과의 파트너십이 약해서, 선택한 활동 영역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 한계를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 목표를 정함에 있어서 충분한 조사와 연구는 필수이다. '장애 청소년 정보화' 사업만 해도 시급함 때문에 '정보 검색 대회' 나 '인터넷 서바이벌 대회' 등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과를 위한 행사를 마련하기보다는 '기본 인터넷 기술을 사용할 줄 모르는 장애인을 얼마나 줄이는가' 에 초점을 맞춘다면 장애인의 취업 기회나 진학 기회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활동 범위에 있어서도 국가 전체의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축소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한된 자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모두 다 책임질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떠맡는 것도 좋은 일만은 아니다. 그럴 경우 국가는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려고 하고 자기 책임에 소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열악한 사회 복지 상황을 놓고 볼 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사회복지 분야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 특수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칫 잘못하면 생산적 복지가 아닌 일방적 시혜로 자립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도 이루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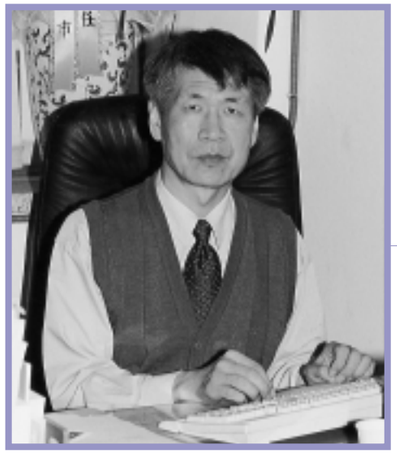
'장애 청소년 정보화' 든 '소년소녀가장 정보화' 사업이든 이미 그들을 돕고 있는 수많은 자원봉사 단체와 시민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할을 무시한 채 기업이 물량 작전으로 직접 서비스를 한다면 이는 곧 시민 단체나 자원봉사 단체들과 서비스 경쟁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물론 그 경쟁에서 뛰어난 인적 · 물적 자원을 가진 기업이 앞서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수혜자 측은 언제나 자신들에게 보다 큰 혜택을 주는 쪽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년 전 삼성그룹이 자원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장려했던 초기, 기업이 많은 사회 복지 시설에 기부금과 기부 물품을 한아름씩 제공한 덕에 그들은 환영을 받았으나 기존의 자원봉사팀들은 상대적으로 냉대를 받아서 자원봉사활동을 중단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것은 삼성의 잘못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결과 또한 아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삼성 역시 가능하다면 지역 사회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거나 연대 활동을 펼치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하여 실시하고 있다.

활동의 목표가 지역 사회의 변화라면 그것을 추구하는 그룹과 연대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시민 단체, 자원봉사 단체들은 지역의 사정에 정통하므로 이들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변화가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다.

사회공헌 활동에 있어 'SK텔레콤이 무슨 무슨 일을 했다'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무슨 변화(결과)를 가져왔다' 가 중요하다. 이것이 좋은 평판을 얻는 길이다. 이 길은 지역 사회 기관 단체들과의 파트너십, 특히 지역 사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 자원봉사종합센터 및 풀뿌리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이룰 때 첩경이 된다.

모범적인 사회공헌활동을 기대하며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 한국생협연대 회장
·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 경실련 사무총장
· 실업극복국민운동 공동 운영 위원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 운영 위원장
· 저서 〈만화 근로기준법〉, 〈노동운동과 신사회 운동의 연대(공저)〉

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일하는 조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업이 사회적 공헌을 하는 것은 아주 부차적인 사업이 되거나 또는 기업이 관심을 가질 필요조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라는 말이 있다. '정승같이 써라' 는 것은 품위 있게 돈을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두루 돌아보며 쓰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개처럼 벌라' 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 '어렵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말라' 는 정도면 괜찮은데 '양심도 버리고, 환경을 파괴해도 좋고, 부정 부패도 마다하지 않고, 인권을 유린해서라도 돈을 벌라' 는 정도로 해석한다면 이 기업은 반사회적인 기업이 되어 아무리 번 돈을 잘 써도 사회적인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언론이 발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소식이 전달되는 사회에서 이렇듯 몰염치하게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은 우선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기업의 사회적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다. 요즈음은 단순하게 상품 광고만을 하지 않는다. 기업이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서 이미지 광고를 하는 이유는 기업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될 때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들이 신뢰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은 올바른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하다. 한 기업의 모든 종사자들이 '사회를 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자기의 노력과 물질을 내어놓게 되지만, 그것은 맞바로 자기 자신을 보다 헌신적이고, 사려 깊고 따뜻한 마음을 갖도록 함으로써 그 스스로가 이미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옛날 어른들의 말씀처럼 '죽

어서 천당(극락) 가는 것' 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보상을 받는 것이다.

기업의 일차적인 일은 사업을 잘 하여 이윤을 내는 것이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그 기업이 사회를 위하여 공헌할 때 이를 아는 많은 사람들의 그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게 됨은 물론이고, 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기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고 나아가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보다 품격 있고 사회와 이웃을 생각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

SK텔레콤의 정보화를 위한 공헌

SK텔레콤의 사회공헌활동은 우선, '기업도 시민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므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 는 기업시민정신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평을 넓힌 것으로, 단순히 사회복지 시설을 지원하거나 노력 봉사를 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단연 돋보이는 일이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자선에서 참여로, 참여에서 투자로' 를 모토로 사회공헌활동의 패러다임을 변환시키면서 활동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나라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다. 더구나 IMF 관리 체제라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적 공헌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지속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이다.

지난 SK텔레콤의 사회공헌활동을 돌아보면 몇 가지 특징을 꼽을 수 있다.

첫째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는 원칙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장 눈앞에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쉴 곳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를 위하는 길은 그가 다시는 구걸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고,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더 큰 사회적 차별에 빠지기 쉬운 장애 청소년과 소년소녀가장 등이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펼쳐진 SK텔레콤의 다양한 활동은 단연 돋보이는 일이다. 이를 계기로 이들이 정보 격차(Digital Divide)를 극복하고 장애와 가난을 뛰어넘어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기 잡는 법' 을 가르쳐준 것이다.

둘째, 이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이다. 장애 청소년들이 '정보 검색 대회' 등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가 정보화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칫 이런 행사가 부유한 장애 청소년들만을 위한 대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의 특수학교에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셋째,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한 점이다. 소년소녀가

장을 위한 PC 지원과 정보화 교육, 사랑 희망 캠프 등을 진행하고, 농어촌 초등학교에 PC 보급 사업을 펼쳤다. 또한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일시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서민층이나 장애인 등에게 지속적인 요금 감면 혜택과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기업과 관련된 일을 펼친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자체가 정보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 사업을 중심 사업으로 삼은 것은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향후의 활동에 대한 몇 가지 제언

우리 나라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그런 속에서도 SK텔레콤이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走馬加鞭)'는 뜻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려고 한다.

첫째,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성격에 따라 일회성 사업이 있겠지만, 장애 청소년을 돌보는 일이나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일 등은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다.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이들을 일회성 행사에 동원한다면 기업은 그 행사를 통해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수혜 대상자들은 기업의 홍보 행사에 들러리가 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일이 몇 차례 중복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고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고마워할 줄 모르게 되거나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될 수 있다.

둘째, 지속적인 지원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사업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다. 전국의 장애 청소년이나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한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취약 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특정 지역을 정하는 경우 그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고, 정부에서 생산적 복지를 외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복지 시스템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지원을 함으로써 정부의 공적 복지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공적 복지와 민간의 사적 복지 또는 지역의 자원봉사활동 등과 제대로 네트워크가 구성될 경우 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업이 지역의 복지를 담당할 경우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

다. 일부 기업에서는 지역에 직접 복지관을 지어서 운영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지역에서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중에 적절한 파트너를 찾아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좋다. 공동으로 계획을 세우고 함께 평가를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큰 틀은 함께 짜지만 직접적인 시행은 지역의 복지 단체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취약 계층을 지원할 경우 단순한 지원보다는 그들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긴급한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의 경우 단순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 이다. 즉, 가난을 확실하게 벗어나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돕는 것이다.

여섯째, 기업만이 아니라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장려하는 것이 좋겠다. 종업원들이 봉사 모임 등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가 더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일곱째, SK텔레콤이 사회공헌을 위하여 기여하는 몫을 점차 늘려가길 바란다. 기업에 무작정 사회공헌에만 더 많은 돈을 쓰라고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사회공헌활동에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이를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 될 것이다.

SK텔레콤은 우리 나라 기업 중에 세계적으로 발돋움하는 기업의 하나이다. SK텔레콤이 더욱 발전하여 세계 제일의 기업이 되길 바라고 아울러 사회적 공헌에서도 세계적인 모범 기업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동안 애써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현주소

주신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장)

- 제15회 세계농아스포츠대회 한국 선수단 감독
-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장
- 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위원
- 국민교육헌장 표창, 국민훈장 석류장,
-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 공로 표창 수상

손병두 (전경련 상근부회장)

-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 전경련 상근부회장, 동탑 산업 훈장 수상
- 데일카네기 리더십상 수상
- 저서 〈지승경제담론〉, 〈뉴 밀레니엄 생존 전략〉, 〈차라리 동전을 던져라 (역)〉, 〈시장경제와 기업가 정신(편저)〉, 〈미래의 경영 (역)〉 외 다수

답변자 : 손병두(전경련 상근부회장)
주신기(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장)

사회 : 최근 우리 나라도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도를 외국과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손병두 : 전경련에서는 지난 9월에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우리 기업인들과 국민들의 참여 현황과 인식 양태를 파악하고자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CEO급의 기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기업인들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도덕적 의무' 라는 데 95%가 동의하였고, '경제적 이익에도 기여한다' 는 데 94%,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는 데 82%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인들의 75%는 자사의 사회공헌활동

에 만족하고 있고, 84%는 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잘 배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기업인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고, 단순히 도덕적 의무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여기는 등 인식의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제 경영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보다 앞서 1999년의 조사에 의하면 147개 응답 기업 중 절반은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경상 이익의 1% 이상을 지출하고 있고, 심지어 5% 이상을 지출하는 기업도 30여 개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기업들은 경상 이익의 2% 이상을 사회공헌활동에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의 역량이나 현재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인들이 사회공헌활동에 들이는 노력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여도에 있어서 기업 간에 차이가 크고, 이제 사회공헌활동을 경영 전략적 차원에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위한 조직이나 프로그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효과성을 높여줄 사회적 환경이 미성숙 함을 고려할 때 제 주관적인 평가는 미국이나 일본 등을 100으로 볼 때 우리 기업에는 75점 정도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사회 : 최근 기업들은 자사의 공익활동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공익 연계 마케팅, 사회 공익 광고 제작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얻기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손병두 : 전경련이 조사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 중 92%는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한 기업에 호감을 갖고 있으며, 최근 소비자의 구매 동기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이외에 해당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인가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익 연계 마케팅(Cause-Related Marketing)이나 사회 공익 광고는 그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과연 소비자들이 어떤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회적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회단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것이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고, 또한 가급적 소비자나 시민들이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참여 의식과 주체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주신기 : 농어촌 벽지 초등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정보화 무료 순회 교육을 실시한 일이나 장애인용 전자 도서관 구축을 지원한 일,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후원하는 등의 일은 모두 기업의 공익활동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에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언론 홍보가 뒷받침된다면 국민 인지도 향상에 큰 효과를 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자원봉사단의 활동이 가장 확실한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SK텔레콤에서 발족한 600명의 자원봉사단이 노인 복지, 장애인 재활활동, 길거리 청소 등 사회복지 전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을 펼쳤는데 이것이 자원봉사자의 가족과 주변 사람에 미칠 파급 효과를 생각한다면 600명은 결코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TV프로그램 '체험 삶의 현장'은 좋은 예입니다. 어려운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땀을 흘리는 모습에서 보는 사람까지도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우리 삶의 진솔한 모습 속에 잊혀져가는 봉사의 마음을 잘 담았기에 이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는 더 많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자신의 직업적 특기를 살려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음식 만드는 기술자, 옷 만드는 기술자, 집 짓는 기술자, 학자, 프로그래머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하게 개발되길 바랍니다.

사회 : 국내 기업 사회공헌활동은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선진 기업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해가며 수정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나라 고유의 정치, 사회적 배경과 여건을 감안한 독자 모델을 제시할 단계가 된 것 같은데요, 한국적 스타일의 기업 사회공헌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병두 : 어떤 제도가 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려면 제도 자체의 완성도만 높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제도가 뿌리내릴 토양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사회공헌활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회적 측면에서는 비록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수준에 이르렀지만 그것이 나눔의 문화나 성숙된 공동체 문화 형성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한 문화의 형성을 위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기부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법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보면 우리의 경우 미국 등의 경우에 비해 지나치게 규제가 많은 편입니다. 미국의 경우 모금을 시작하는 첫 해에만 정부에 등록하면 그 뒤로는 큰 잘못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지만 우리는 매번 모금 건당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모금 비용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그 상한선을 낮게 규제하고 있는 반면, 모금 결과에 대한 회계 감독은 매우 느슨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와 불투명성은 기부 문화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법에 있어서도 기업의 연간 소득세 중 자선 기부 공제 비율이 미국은 10%인 데 비해 우리는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부 문화 확산에 법적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듯 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업과 사회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 NGO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주신기 : 기업의 남는 이익을 베푼다는 식의 사회공헌활동은 점차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본연의 활동에 꼭 필요한 비중 있는 사업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시작된 사회공헌활동은 그 생명력이 길지 못하였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는 CEO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CEO의 의지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의지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므로 그 효과가 대단히 높다는 것은 외국의 예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나 기부 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정비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공헌활동에 들인 노력과 비용에 못지 않은 기업 이미지 제고와 사회적 효과가 있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에 뛰어들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공헌과 기부 문화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를 점검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부하였다는 사실이 주변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부하고 그 돈이 소외 계층의 소중한 생명줄이 되어 이 사회를 더욱 건강히 만든다는 사실을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기부 문화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사회 : 기업 사회공헌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다분히 사회 복지적인 성격을 띠는 탓에 정부 및 NGO 등과 역할이 중복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정부, 기업, NGO 3자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바람직한 상호 협력은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두 : 사회공헌활동의 영역은 기업과 정부, NGO 등이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할 분야입니다. 우리 나라가 지향하는 국가 모습 중 한 가지는 헌법에도 천명되어 있지만 시장 경제 국가와 함께 사회 복지 국가이므로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과 경제 능력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도 훌륭한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NGO도 시민권리의 향상을 위해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이 최근 크게 높아지고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아직은 본격적인 발전이 막 시작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회공헌활동은 정부나 기업, NGO 중 어느 한 주체의 힘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고, 3자간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역할 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과 함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활동의 외부 환경에 대한 투자임을 인식하고, NGO는 기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공헌활동의 적절한 수요 발굴과 보다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기업에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것과 민간 부문에 맡길 부분을 구분하여 기업과 NGO에 맡길 부분은 자발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제도적인 면에서 애로점을 해결해 주고 지원해 주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와 마찬가지로 이 분야도 민간의 자발성과 창조성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신기 : 기업의 경우는 대부분이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서비스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일반의 사회 복지적 마인드 또한 다분히 수혜적입니다. 이는 다른 서비스 체계와 중복되는 이중적 지원 서비스라는 형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조사와 또 다른 서비스 계층 발굴 등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의 행정력과 민간 서비스 계층의 욕구 조사(Need Search) 그리고 기업의 사회 복지 지원 체계 등 3개의 전달 체계가 효율적인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민 · 관 · 기업적 사회 복지 전달 체계가 확립될 것입니다.

이는 정기적 의사 소통 구조의 필요성을 대두시킵니다. 정부와 기업, NGO가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협의 구조에서 수혜적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지원과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호 협력이 가능하며 클라이언트는 골고루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대상에 따라 NGO는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은 장애인 복지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노인에 대한 지원은 노인 복지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문제 역시 여성 복지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부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조언자 역할을 해 나갈 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갈 것입니다.

사회 : SK텔레콤은 정보 통신이라는 업의 개념을 살려 소년소녀가장, 장애 청소년, 농어촌 등 정보 인프라 취약 지역에 대한 정보화 진흥과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을 병행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조언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손병두 : 우리 나라 정보 통신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사회공헌활동에 있어서도 가장 모범적인 기업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정보화 사업은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정보 격차(Digital Divide)는 빈부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SK텔레콤이 보유한 강점을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밖에 사랑의 집짓기 운동 후원 등 SK텔레콤이 치열한 기업 간 경쟁 여건하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흘리는 땀을 보면서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히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사회는 별개로 분리된 집단이 아니라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연어의 치어를 강물에 방류하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커다란 연어가 되어 돌아오듯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외부 환경인 사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발전과 성숙에 의해 더욱 굳건한 토대를 구축하게 되므로 기업은 앞으로도 초일류 기업으로서 성장하려는 노력과 아울러 경영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보다 효과적인 사회공헌활동을 계속 활발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주신기 : 지금까지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면 쌀과 라면, 옷가지 등을 먼저 떠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먹고 입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사회공헌이 다 되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그 특성상 정보 통신의 혜택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일찍부터 장애인들의 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컴퓨터와 정보 통신의 변화무쌍한 흐름을 제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SK텔레콤을 비롯하여 이 분야의 지원을 인식한 기업에서 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 키보드를 칠 수 없는 지체 장애인 등 장애인은 정보 통신과 컴퓨터를 배우고 익히는 데 제약이 많습니다.

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정보 통신

과 컴퓨터 기술에 접근하여 장애인의 손으로 장애인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T분야의 장애인 고급 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들 그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들로 하여금 후배 양성에 앞장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장애인들은 수년 내 IT분야에서 특유의 집중력과 끈기로 또 다른 사회적 이익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사회 :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외에도 SK텔레콤은 기업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와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신기 : SK텔레콤의 휠체어 농구단 광고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15초의 광고를 보고 나면 왠지 마음이 훈훈해지곤 합니다. 광고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분명 SK텔레콤은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요청하는 단체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들이 무수히 많은 현실에서 대기업이 정도를 지키며 사회복지에 기여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에서 SK텔레콤은 분명 이 분야의 만족스런 성적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이 사회의 변두리에서 기업과 사회의 보살핌이 절실한 계층입니다. 전국 130개 초등학교 결식아동 500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 급식 지원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나 사랑 희망 캠프를 열어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5200세대에 컴퓨터를 보급하는 일은 기업으로서의 의무가 무엇인지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또 최근 1588 장애인 전화 사업에 컴퓨터 등 기자재를 지원한 것은 SK텔레콤이 사회복지 발전에 제대로 기여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SK텔레콤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한 것은 장애인 전화의 사회적 기여도를 미리 예측하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를 발굴하여 이 사회에 널리 알리는 일은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례를 접하며 용기와 희망을 갖고 주위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 끝으로 21세기를 앞두고 SK텔레콤을 비롯한 국내 기업 사회공헌활동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분야를 제시해 주신다면?

손병두 : 최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인식은 놀라울 정도로 높아지고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질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즉, 경영 전략상 중요한 의사 결정의 한 영역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투자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있어서 외국의 경쟁 기업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필수적이며 중대한 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나치게 다양한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각 기업들이 NGO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자사가 가진 강점과 NGO의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결합시켜 고효율의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각 기업 간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있어서 CEO의 확고한 의지와 역할입니다.

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성공적이고 활발하게 발전해 가느냐, 아니면 위축되고 침체되느냐 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힘은 결국 CEO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우리 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경쟁력 있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고 사랑 받는 기업, 존경 받는 기업인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주신기 : 기업은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생존 경쟁에서 낙오되면 더 이상 좋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IMF 구제 금융 시기에 우리는 그토록 사회적 기여도를 강조했던 유수한 기업들이 쓰러져 가고 그러면서 사회 복지도 메말랐던 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SK텔레콤은 지금의 위치에서 만족하지 말고 고도화된 세계적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이미 여러 나라의 이동 통신 시장을 개척하고 선점하여 한국 이동 통신 기술력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지만 세계 일류 기업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SK텔레콤이 이동 통신 관련 분야의 전문가 집단인 것처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같은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뛰는 곳입니다. 이 분야가 활성화되려면 우선 우수한 인재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SK텔레콤이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거기서 풍부한 이익을 남겨 우수한 인력들이 장애인 복지 분야에 동참할 수 있는 토양을 일구는 데 힘을 보태주길 바랍니다.

제2부

부문별 2001년 사회공헌활동

- 장애 청소년 정보화 사업
- 소년소녀가장 정보화 사업
- 국제 사회공헌활동
- 기타 사회공헌활동
- SK텔레콤 자원봉사활동

장애 청소년 정보화 사업

장애와 편견 없는 정보화 사회
우리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성장을 염원하며–

SK텔레콤은 2001년 한 해 동안 대표적 정보 소외층인 장애 청소년이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무한한 가능성과 장애 극복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 없는 사이버 세상으로의 항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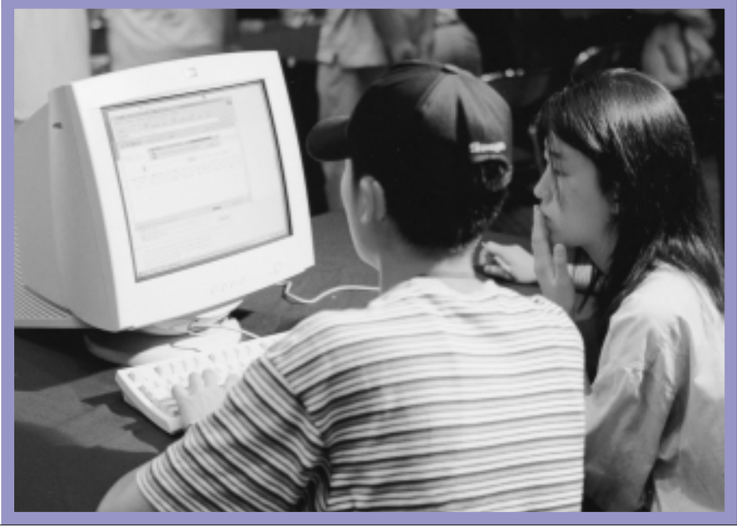
장애 청소년 정보 검색 대회

2001년 6월 18일, '2001 SK텔레콤 장애 청소년 정보 검색 대회'가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 대회에는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과 SK텔레콤 조정남 부회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89개 특수학교 261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었다.

이미 1, 2차 온라인 대회를 거쳐 열린 이날 본선 대회는 2인 1조로 구성된 131개 팀이 1시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된 10개의 문제를 놓고 장애에 따라 신체, 시각, 청각, 정신 장애 분야로 나누어 누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느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SK텔레콤은 원만한 대회 진행을 위해 140대의 컴퓨터를 준비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특수 모니터와 키보드, 장애인 전용 프로그램, 점자 문제지 등을 마련하는 한편 청각 장애인을 위해 수화 통역사를 배치시키는 등 장애별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이번 대회의 전 과정을 인터넷 생중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결과가 채점되는 동안 참가 학생들에



게는 중식과 함께 각종 레크리에이션과 축하 공연을 그리고 시상 후에는 아쿠아리움 견학 기회도 제공하여 좋은 추억을 선물해 주었다.

장애 청소년들에게 장애 극복 의지를 북돋워 주고, 정보화 능력과 도전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은 서울삼성학교의 김현인, 신성철 학생과 지도 교사 송영준 선생님이 차지하였으며 시각, 정신, 지체, 청각 등 각 분야별로 한 팀씩 금·은·동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장학금이 수여되었으며 특히 대상과 금상을 받은 학생과 지도 교사 및 학부모에게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사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시상 내역

구분	학생	지도 교사	학교
대상(1팀)	미국 연수 특전 장학금 200만 원, 상장, 메달 수여	미국 연수 특전 장학금 100만 원, 상장, 상패 수여	PC 수여
금상 (장애 영역별 각 1팀)	미국 연수 특전 장학금 100만 원, 상장, 메달 수여	미국 연수 특전 장학금 50만 원, 상장, 상패 수여	PC 수여
은상 (장애 영역별 각 1팀)	장학금 50만 원 상장, 메달 수여	장려금 30만 원 상장, 상패 수여	프린터 수여
동상 (장애 영역별 각 1팀)	장학금 30만 원 상장, 메달 수여	장학금 20만 원 상장, 상패 수여	프린터 수여

시상 내역

장애 영역	수상	학교명	학생명	교사명
대상		서울삼성학교	김현인, 신성철	송영준
시각 장애	금상	전남은광학교	유광현, 차두진	정 훈
	은상	서울학교	윤형진, 조관주	박우영
	동상	인천혜광맹학교	이준희, 한상훈	이상봉
지체 장애	금상	성베드로학교	신민규, 최승무	이창연
	은상	새얼학교	안정훈, 임성순	양명윤
	동상	성광학교	배승현, 안진수	김문섭
청각 장애	금상	부산혜송학교	김종석, 배시현	이동현
	은상	숭덕학교	김준환, 정호원	김국현
	동상	광주은혜학교	김현주, 채지수	류영옥
정신 지체	금상	서울애화학교	김승명, 최지욱	이길도
	은상	충주성심학교	김효정, 원정빈	원종화
	동상	경남천광학교	김정욱, 유정훈	배진수

SK다큐

장애 청소년 정보 검색 대회

2001년 6월 18일, 비가 내린다.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이런 날의 외출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보통 때에도 한 번 외출을 하려면 여간 큰맘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데 비까지 오고 있다니…. 하지만 대회장인 코엑스(COEX) 그랜드 볼룸에는 이미 많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SK텔레콤 장애 청소년 정보 검색 대회'.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참가한 이유는 오직 하나다. 대상의 영예나 마이크로소프트사 견학? 그것도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정보 검색 대회가 오직 그들만을 위한 대회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껏 장애의 불편함을 벗어버리고 자신이 쌓은 실력을 다른 친구들과 정정당당히 겨루어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가? 동정이나 멸시의 시선은 물론 장애의 불편함마저 떨쳐 버리고, 장애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회가 바로 이 대회였던 까닭에 비가 온다고 주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전 10시. 드디어 대회가 시작되었다. 김동선 정보통신부 차관, 박영식 광운대학교 총장 겸 정보통신윤리위원장, SK텔레콤 조정남 부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정보 검색 대회!

SK다큐

대회는 스포츠, 영화, 문화, 역사 등의 분야에서 선정된 난이도 높은 10개의 문제를 60분 동안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모두 1, 2차 예선을 통과하고 이 자리에 모인 실력자들이었지만 정작 대회가 시작되자 얼굴에 나타나는 긴장감은 어쩔 수가 없었다. 사회자의 말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수화 통역사의 손끝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청각 장애 학생, 심한 약시 때문에 마련된 특수 모니터인데도 좀더 잘 보려고 바짝 얼굴을 맞대고 들여다보는 시각 장애 학생, 마우스조차 클릭하기 힘든 불편한 몸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움직이려는 지체 장애 학생….

지도 교사와 보호자는 말할 것도 없고 참가자들의 이동 및 안내를 맡은 자원봉사자나 수화 통역사 모두 숨죽이고 지켜볼 뿐, 이들의 어려움을 대신해 줄 수는 없었다. 그저 마음으로만 함께할 뿐. 그러나 이 어수선함도 잠시, 어느새 긴장되고 불안했던 마음은 문제로 집중되고 참가자들의 눈빛은 더없이 진지하기만 했다.

어느덧 1시간이 지나고 숨가쁜 본선 대회도 끝났다. 그리고 터져 나온 가벼운 함성! 힘든 시간이었던 만큼 끝난 후의 만족감 역시 그 어느 순간보다 컸다. 준비된 식사를 하기 위해 대회장을 나오는 다른 참가자들의 표정 또한 어느새 뿌듯한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후 시간은 정성스레 준비한 식사를 맛나게 먹고는 삐에로와 슈퍼맨, 마스

SK다큐

크맨 등으로 분장한 아저씨들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 보내기 그리고 시상에 앞서서 DMC 댄스 공연단과 삼성학교 난타교실의 축하 공연 보기로 이어졌다. 특히 청각 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삼성학교 난타교실의 공연은 장애를 뛰어넘어 완벽한 리듬을 선보임으로써 많은 박수를 받았다.

축하 공연에 이어서 거행된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은 서울삼성학교의 김현인, 신성철 학생과 지도 교사 송영준 선생님에게 돌아갔고 시각, 지체, 청각, 정신의 장애 영역별로 각각 금상, 은상, 동상이 수여되었다. 대상을 받은 서울 삼성학교의 송영준 선생님은 "강한 의지를 지닌 아이들이에요. 제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그 의지와 목표가 꺾이지 않도록 곁에 있어준 것밖에 없습니다"라며 김현인 군과 신성철 군을 자랑스러워했다.

또한 지체 장애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한 광주은혜학교의 채지수 학생은 "연습기간이 길지 않아 입상은 기대도 못했는데 이렇게 상을 받았으니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며 겸손해 했다.

이날 행사는 코엑스(COEX) 아쿠아리움 견학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는데 학생들은 신비한 바닷속 광경을 돌아보는 틈틈이 옆의 참가자와 함께 자신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는 등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계속 노력하여 더 나은 실력으로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인터뷰

서울삼성학교 신성철 · 김현인

“자신감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어요”

“꼭 상을 받겠다는 욕심보다는 그동안 쌓은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 참가한 것인데…. 실력 있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대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컴퓨터를 시작하면 먹고 자는 것도 잊어 버리게 된다는 성철이와 현인이. 아직 대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다며 얼굴을 붉히는 이들은 모두 서울삼성학교에 다니는 청각 장애인.

수화로만 의사 소통이 가능한 까닭에 수화를 모르는 보통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가 힘들었던 성철이와 현인이는 스스로 사람들을 피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우연히 인터넷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사정은 달라졌다. 이들에게 사이버 세상은 장애 · 비장애를 떠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고, 평소 궁금했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보물단지였던 것이다.

더 넓은 세상과의 만남! 이 재미에 푹 빠진 성철이와 현인이는 이후 틈만 나면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고 지금은 친구들 사이에서 ‘컴퓨터 도사’라고 불릴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신청한 것이 ‘2001 SK텔레콤 정보검색 대회’. 하지만 막상 본선에 진출, 대회장에 들어서자 입이 바짝 타들어갔다. 컴퓨터에 대한 자신감 하나로 무작정 도전하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적지 않게 부담이 되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막상 대회가 시작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서 조금 전까지의 초조함은 진지함으로 바뀌어 나갔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했다면 비록 그 결과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희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이번 대회를 통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강한 의지를 배웠다는 성철이와 현인이. 희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이 주인공이 될 따뜻하고 밝은 내일을 예감해 본다.

인터뷰

성베드로학교 이창연 선생님

아이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컴퓨터는 장애를 이기는 재활의 도구이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꿈의 마당입니다. 특히 정신지체 장애 때문에 마음껏 세상을 돌아다니지 못하는 학생들 경우는 더욱 그렇지요."

2001년 정보검색대회에서 정신지체 부문 금상을 수상한 성베드로학교의 이창연 선생님. 장애인과 함께 느끼고 생활하는 그는 몸과 마음의 상처로 재활의 의지를 잃었던 학생이 컴퓨터를 만나고 나서 생활의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다. 그러기에 이창연 선생님은 장애 청소년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를 잘 안다.

이번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최승무, 신민규 학생도 마찬가지.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불편한 몸만큼이나 매사에 위축된 마음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컴퓨터를 만나고부터는 정보 검색 대회에 자신들이 먼저 참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힐 정도로 매사에 활발하고 적극적인 아이들이 되었다. 준비 기간 동안에도 스스로 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서인지 새로운 것에 적응해 나가는 속도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빨랐다.

하지만 그 누구도 승무와 민규가 입상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 선생님조차 컴퓨터와 인터넷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기에 대회 참가는 좋은 경험이 되겠다 싶어 함께했던 것인데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다니 ….

아이들과 수상의 기쁨을 나누면서 이 선생님은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동안 아이들의 길잡이 역할을 다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떨구어낼 수 없었다.

하지만 금상 수상으로 떠나게 된 미국 연수에서 아이들이 보인 변화와 발전은 그를 한없이 기쁘게 했고, 또 채찍질했다. 사실 출국 전부터 낯선 사람과 언어, 환경에서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 더욱이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승무와 민규 모두 신경이 예민한 편이라 좀처럼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막상 미국에 도착하니 이런 걱정은 모두 기우였다.

공항에서부터 가장 들뜬 모습을 보이며 신나는 하루하루를 보낸 아이들도 승무와 민규였고, 헐리우드와 디즈니랜드에서도 남다른 호기심을 자랑한 아이들도 바로 승무와 민규였다. 박찬호 선수 경기 관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린피스 천문대와 트위픽스 야경을 보면서도 아이들은 너무나 좋아했다.

"이번 정보 검색 대회를 통해 아이들에게 경험과 체험의 기회를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우며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가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자주 열려서 더 많은 장애 청소년들이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로서는 이런 대회를 마련해 준 SK텔레콤에 거듭 감사할 뿐이지요."

이제 교사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창연 선생님. SK텔레콤처럼 장애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 주려는 기업이 많아졌으면 하는 그의 바람이 간절하다.

용기를 배우는 100시간의 도전

장애 청소년 인터넷 서바이벌 대회

장애 청소년들에게 자신감과 패기, 장애 극복에 대한 도전 정신 및 정보화 능력의 함양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2001 SK텔레콤 장애 청소년 인터넷 서바이벌 대회'가 2001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4박 5일 동안 개최되었다.

서울 역삼동 휴먼 터치빌에서 실시된 이번 대회는 1, 2차 예선을 통과한 총 5개 팀 10명이 참가, 각자 배정된 방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1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와 인터넷만으로 생활 필수품을 조달하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회 기간 동안 참가자들에게는 인터넷을 통한 기본적인 의 · 식 문제 해결은 물론 티켓 예매하기, 사이버팻 키우기, 나만의 뮤직 앨범 만들기, 과일 바구니 배달하기,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 보내기 등 다양한 분야의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주어졌으며 참가자들은 능숙하게 과제를 해결해 냄으로써 인터넷에 대한 장애 청소년들의 관심과 성취도를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채팅, 이메일 등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귐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에 대한 마음의 벽을 허무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특히 대회의 모든 진행 과정을 넷츠고(www.netsgo.com)를 통해 생중계함으로써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정보 소외 현상을 공론화시키고 인터넷의 활용성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의식 변화에 일조하는, 진일보한 기업 사회공헌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00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대회의 경험을 토대로 참가자들이 불편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회 운영진이 24시간 상주하는 등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참가자들의 성취도는 과제 해결 능력과 함께 미리 제출한 생활 계획서를 근

거로 평가한 성실성, 계획성, 사회성, 경제성, 여가 활동 등의 항목에 대한 점수와 네티즌의 호응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되었다. 그 결과 대상은 삼육재활학교의 꿈도리(김경준, 이병호)팀이, 금상은 충주성심학교의 지킴이(변진섭, 원정빈)팀이 수상하였다. 이외에도 참가한 모든 팀에게 은상, 동상, 장려상이 시상되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장학금과 함께 노트북, PDA, 스캐너, MP3 플레이어 등 다양한 부상이 주어졌다.

한편 지난 6월에 열린 정보 검색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서울삼성학교의 신성철 군은 이번 대회에서도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룸으로써, 장애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정보화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금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수상자 명단

구분	시상 내역	팀명(이름, 학교)
대상	장학금 300만 원 및 노트북	꿈도리(김경준, 이병호, 삼육재활학교)
금상	장학금 300만 원 및 PDA	지킴이(변진섭, 원정빈, 충주성심학교)
은상	장학금 100만 원 및 프린터 겸용 스캐너	한소리(신성철, 이준, 서울삼성학교)
동상	장학금 80만 원 및 스캐너	WINDY(정민희, 황혜진, 대구광명학교)
장려상	장학금 60만 원 및 MP3 플레이어	DREAM(고현석, 정지윤, 제주영송학교)

SK다큐

장애 청소년 인터넷 서바이벌 대회

장애를 넘어 더 큰 세상으로!

원종화 선생님께

선생님. 고작 며칠이 지났을 뿐인데 선생님이 보고 싶네요.

(농담인 거 아시죠?^^)

선생님! 저희를 추천해 주시고, 같이 연습하시느라 퇴근도 늦게 하시고, 같이 서울까지 오셔서 고생해 주셨다는 거 저희는 잘알니다.

가끔 연습하기 싫다고 짜증을 내면 "이것도 못 참으면 앞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며 저희를 이끌어 주셨죠. 당시에는 무척이나 섭섭했지만지금 생각해 보니 선생님의 그 말씀으로 저희가지금여기까지 와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를 위해여러 모로 도움을 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서바이벌 대회 과제 중 선물하기가 있었어요. 누구한테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선물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하하하! 농담입니다. ^^;

그동안 보살펴 주신 선생님의 은혜에 이렇게라도 보답할 수 있어서 무척이나 기쁩니다. 비록 큰 선물은 아니지만 저희들의 정성을 담아 준비했어요. 이제얼마 안 남은 대회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만나면 맛있는 거 사주세요. ^^

원정빈 올림

평소 쉽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던 정빈이가 감사의 글을 쓰다니…. 원종화 선생님은 정빈의 메일을 받고 눈물이 나올 뻔했다.

2급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정빈이. 말하기와 듣기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어 좀처럼 자기 표현을 하지 않던 정빈이가 같은 청각 장애를 안고 있는 진섭이와 함께 '장애 청소년 인터넷 서바이벌 대회'에 참가하더니 이렇게 장난끼 넘치는 편지까지 쓰게 된 것이다.

항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뉘는 우리 사회. 그 속에서 정빈이는 늘 아웃사이더였다. 하지만 정빈이는 인터넷을 익힘으로써 장애를 넘어 세상과 통하는 또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

SK다큐

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또한 이를 매개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는 등 생활의 자신감을 찾아 나갔던 것이다. 이번에 정빈이가 인터넷 서바이벌 대회에 참가를 결심한 것도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다른 장애우들도 도전의 용기를 갖기 바라는 마음도 컸다.

물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정빈에게 대회에서의 순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앞으로 특수교육을 전공해 자신과 같은 장애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꿈이라는 정빈이. 그는 도전해서 노력하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는 모습을 주위 사람들과 후배들에게 보여 주고 싶던 것이다. 그래서

일까? 정빈이는 큰 대회에 앞선 긴장과 불안함 대신 오히려 서바이벌 대회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10월 29일 11시, 드디어 외부와 연결해 주는 유일한 통로인 방문이 닫히고 대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들뜬 마음과는 달리 처음부터 문제가 생겼다. 인터넷이라면 어느 정도 자신도 있고 함께 참가한 진섭과의 호흡도 잘 맞는 편이어서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유일한 결재 수단인 신용카드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물건 하나를 구입하는 데 거쳐야 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했던 것이다.

여러 차례의 실패 끝에 칫솔, 비누, 수건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물품을 구입

하고 점심 식사를 위한 피자를 주문할 수 있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서 과제를 확인하고 나니 한시름 놓였다. 이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파악한 이상, 더 이상의 걱정거리는 없었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나니 점차 과제에 대한 중압감이 사라지고 대회 자체가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진행을 맡은 형과 누나들 그리고 고마운 선생님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채팅을 통해 많은 친구들을 만나는 즐거움에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특히 네티즌들과의 채팅, 이메일을 통해 쇄도하는 친구들의 열렬한 응원은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과 친구들의 고마움을 되새기게 해주었으며, 100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어느새 4박 5일이 지나고 11월 2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대회는 마무리되었다. 드디어 굳게 닫혀 있던 방문이 열리고, 곧이어 대기중이던 글로벌케어 전문 의료 지원 팀이 참가자 전원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전원 이상 무!

공식적인 대회가 끝난 후 모든 참가자와 보호자, 운영 요원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며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나눴다. 이미 채팅을 통해 많이 가까워진 덕분에 대회 첫날 오리엔테이션의 서먹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시상식은 대회 열흘 후인 11월 12일 오후 2시 SK빌딩 대회의실에서 참가자들과 보호자, SK텔레콤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대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긴장된 순간. 하지만 정빈은 결과에 관심이 없는 듯 함께 참가했던 친구들의 안부를 묻고 사진을 찍느라 바빴다.

"순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대회를 마쳤고 각자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승리자라고 생각해요."

결과보다 과정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참가자들에게 서바이벌 대회는 평생 가장 기억에 남을 시간이 되어 주었다. 또한 앞으로의 인생에서 더 깊고 높은 난관이 그들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장애를 넘어 더 큰 세상으로 향하려는 의지와 노력! 이것이야말로 대회에 참가했던 이들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

인터뷰

삼육재활학교 김경준의 어머니 | 우순자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경준이가 본선에 진출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걱정으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잘할 수 있을지, 끼니를 거르지나 않을런지…. 더욱이 불편한 몸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릴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경준이가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잘하고 오겠노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시상식 내내 경준이의 손을 잡고 있던 어머니 우순자 씨는 대회가 진행되었던 4박 5일 어느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경준이는 뇌성마비로 인한 1급 지체 장애인.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누리는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아들이 늘 안쓰러웠던 우순자 씨로서는 경준이의 서바이벌 대회 참가가 결코 반가울 수 없는 일이었다. 4박 5일이나 집을 떠나 생활해야 하는데 그것도 주위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니…. 고립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몸이라도 상할까봐 도통 마음이 놓이질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경준이는 떠나기 전 어머니와 한 약속을 지키려는 듯 누구보다도 열심히 생활을 했다. 한 팀인 병호와 상의하여 차분하게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음식과 옷가지를 비롯한 생활 필수품 등을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생중계되는 경준이의 모습을 하루종일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몸이 불편하다고 무조건 도와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경준이는 몸이 조금 불편할 뿐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사실 같은 것 말이에요."

서바이벌 대회를 통해 또 다른 희망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우순자 씨.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것보다 비장애인에 결코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해 하는 우순자 씨를 보면서 사회의 작은 관심이 우리의 이웃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인터뷰

인터넷 서바이벌 대회를 마치고

앞으로는 어떠한 어려움도 당당히 맞설 겁니다

"대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다. 100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대회 기간 동안 함께 고생한 친구들과 걱정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김경준 · 이병호(꿈모리/대상)

"처음에는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저희를 위해 응원해 주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어요. 사실 스스로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변진섭 · 원정빈(지킴이/금상)

"결과보다는 해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의 후배들도 장애를 딛고 일어서 스스로 도전하는 모습을 가졌으면 해요. 좋은 경험과 추억을 갖게 해준 SK텔레콤에 감사 드립니다." 신성철 · 이 준(한소리/은상)

"서바이벌 대회 덕분에 인터넷과 컴퓨터가 더 재미있어졌어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더욱 나은 실력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로 사이버 세상에는 장애가 없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민희 · 황혜진(WINDY/동상)

"장려상에 그쳐서 아쉽기는 하지만 상을 받으려고 참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져서 많은 친구들이 용기와 자신감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현석 · 정지윤(DREAM/장려상)

소외 없는 정보화 사회 만들기

전국 특수학교 정보화 순회 교육

SK텔레콤은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 청소년들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2001년 11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 사단법인 장애인정보화협회와 함께 전국 134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정보화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 지식 기반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특수학교 재학생의 정보화 교육을 활성화하고, 재활과 자립의 용기를 부여하며, 장애 유형별로 각 학교에 보급된 특수 장비를 통해 고급 정보화 기술을 습득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이미 10월 중에 각 학교별 장비 현황 파악과 강사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마쳤으며, 멀티미디어를 통한 정보화 교육을 위해 CD-ROM Title 교재를 제작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교육은 전임 강사와 이를 보조하는 보조 강사 그리고 청각 장애자들을 위한 수화 통역사 등으로 이루어진 10개의 순회 교육팀이 각각 할당된 지역의 특수학교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시간에는 주로 인터넷 활용, 포토샵, 나모 웹 에디터 등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시각 장애인용 프로그램인 Eyes 2000을 비롯한 다양한 특수 장비에 대한 교육도 곁들여졌다.

특히 정신지체아를 위해서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예능 등 기초 과목을 활용한 교육 과정을 새롭게 만듦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온라인 사이트 운영과 특수학교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장애 청소년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든든한 버팀목을 세웠다.

사랑은 감사를, 감사는 또 다른 사랑을

전시 관련 장애 청소년 초청 행사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보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정보 통신 전시회에 장애 청소년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초청 행사는 지난해 시행한 특수학교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컴퓨터를 지원 받은 청주혜화학교 학생이 SK텔레콤 표문수 사장 앞으로 감사의 편지를 보내온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편지의 주인공은 혜화학교 6학년인 채여진 양. 채 양은 감사 편지에서 학교에 보급된 최신 컴퓨터와 스캐너를 학습에 잘 쓰고 있다고 밝히고,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도 마음껏 갈 수 없었는데 지원해 주신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해 여행도 하고, 친구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많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초청된 청주혜화학교 중등부 학생 15명은 EXPO COMM KOREA 2001 전시회를 돌아보고 코엑스(COEX) 아쿠아리움과 입체 영화를 관람하는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새 컴퓨터, 정말 고맙습니다

SK텔레콤 사장님께

저는 충청북도 청원군 낭이면 구암리에 있는 특수학교인 혜화학교 6학년 채여진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 저희 학교에 컴퓨터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SK텔레콤에서 주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불편한 저희 장애인들을 위해서 최신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등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도이 있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 여행도 가고, 메일로 친구와 주고받으며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공부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예전에 사용하던 컴퓨터는 486컴퓨터라 작동이 느리고 CD-ROM도 구동이 잘 안 되었는데 새로운 기종이 들어와 너무나 신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편리함을 주신 SK텔레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2001. 1. 13

채여진 올림

감사의 편지

저희를 위한 마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혜화학교 교사 신수진입니다.

지금 막 어제 보내주신 농구공과 열쇠 고리를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오는 길입니다. 어제 많이 힘드셨죠? 아이들에게 선물 나누어주면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많은 볼거리, 맛난 음식, 값비싼 선물도 물론 고마웠지만, 무엇보다도 따뜻한 배려에 어느 체험 학습보다 저희가 받은 관심과 사랑이 크게 느껴졌던 정말 즐거운 하루였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여러 번 초청 견학을 다녀왔지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견학이 많아서 엄마나 아이들이나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다들 그렇죠 뭐. 항상 그런 것에 많이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전쟁 같은 하루 하루를 보내는 우리들이니까요. 집에 장애 아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우리 나라에서 그래도 용기 있는 엄마들의 아이들이라고 하겠지만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소리에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심지어 밖에 나가는 체험 학습에는 전혀 참가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는 정말 저희를 위한 행사라는 고마움을 많이 느끼셨던지 지금까지 중에서 최고였다고 말씀들 하시더군요. 동선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폴라로이드 사진까지 준비해 주시고(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목걸이까지…. 이제껏 스티커 사진 한 장도 못 찍어본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만들어 주시려고 했던 마음이 어머님들에게까지 전달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어요. 또 휠체어까지 들어주었던 친절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얼마나 고맙던지…. 주신 간식비로 산 호두과자를 먹으면서 차에서 많은 고마운 말들을 들었어요. 덕분에 좋은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계획 단계부터 저희를 많이 생각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덕분이 아니었나 싶네요.

남과 다르다는 패배감에 어쩔 수 없이 치열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기분 좋은 관심 많이 보여 주셔서 정말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고, 다른 특수학교 학생들도 많이 초대해 주셔서 좋은 구경 많이 시켜주세요.

참, 성함은 정확히 모르지만 어제 우리반 희주 녀석 손을 꼭 붙잡고 다니시느라 고생하신 직원 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습니다.

좋은 하루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

청주혜화학교

교사 신수진 드림

소년소녀가장 정보화 사업

모두가 주인 되는 정보화 사회, 그 미래의 불을 밝힙니다

2001년 SK텔레콤은 소년소녀가장 PC 지원 및 정보화 교육, 사랑 희망 캠프 개최 등의 활동을 확대 · 전개함으로써 사회 소외 계층의 정보화를 앞당기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기업시민정신에 바탕을 둔 SK텔레콤의 정보 격차 해소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보화 세상에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그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소년소녀가장과 나누는 꿈과 희망

소년소녀가장 PC 지원 사업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소외 계층의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SK텔레콤은 2001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소년소녀가장 830세대를 대상으로 PC를 보급하는, 소년소녀가장 1세대 1PC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이미 2000년에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국 소년소녀가장 7184세대 중 PC 보유자를 제외한 5210세대에 PC를 보급한 바 있는 SK텔레콤은 2001년도 신규 책정된 830세대에 펜티엄IV급 PC를 보급함으로써 총 6040세대에 PC를 지원했다.

이번 SK텔레콤의 PC 보급은 상대적으로 정보화에 소외되기 쉬운 소년소녀가장에게 고성능 PC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PC를 지원 받은 소년소녀가장 830세대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복지재단에서 2001년 신규 책정된 학생으로, SK텔레콤은 이들의 실질적인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PC의 보급과 함께 정보화 교육을 더불어 실시했다.

앞으로도 SK텔레콤은 소외 계층의 정보화를 위해 소년소녀가장 PC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소년소녀가장 PC 지원 지역별 현황

지역	보급 세대	지역	보급 세대
서울	28세대	부산	46세대
대구	11세대	인천	50세대
광주	25세대	대전	6세대
울산	5세대	강원	11세대
경기	142세대	경남	44세대
경북	95세대	전남	199세대
전북	77세대	충남	32세대
충북	58세대	제주	35세대

‘함께’라는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

소년소녀가장 사랑 희망 캠프

2001년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이천 SK텔레콤 인재연구소에서 ‘2001 SK텔레콤 소년소녀가장 사랑 희망 캠프’가 개최되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사랑 희망 캠프는 지난해 SK텔레콤으로부터 PC를 지원받은 5000세대의 소년소녀가장 중 한국복지재단을 통해 추천 받은 100명의 초·중학생이 참가, 3박 4일 동안 인터넷 탐험과 홈페이지 만들기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받았다.

소년소녀가장들의 사이버 시대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인라인 스케이트와 힙합 교실, 119 소방 교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웃음을 잃어가고 있던 소년소녀가장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 주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정보 인프라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주었다.

SK다큐

소년소녀가장 사랑 희망 캠프

웃음과 사랑으로 어우러진 3박 4일

사랑 희망 캠프 첫째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와 달리 밝은 표정의 아이들이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SK텔레콤 인재연구원에 모여들었다. 모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생활해 가고 있는 100명의 소년소녀가장. 앞으로의 3박 4일을 기대하며 한껏 들뜬 모습이었다.

개영식과 점심 식사 후 각 팀으로 나뉜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어색함과 수줍음을 떨쳐버렸고 각자 자신의 팀을 대표할 팀명과 구호, 노래 등을 함께 고민하면서 결속력도 다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인터넷 탐험 시간. 지난해 SK텔레콤에서 PC를 지원해 주고 간단한 교육을 해주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처음 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실력은 천차만별.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누어 '인터넷으로 배우는 테마여행' 이라는 주제 아래 윈도우 다루기를 비롯해 인터넷 상식, 게임 등 기본 지식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관심이 가장 컸던 것은 이메일로 편지 보내기와 채팅.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재미에 빠진 아이들에게 이미 인터넷은 무엇이든 가능한 무한한 세상이 되었다.

인터넷 교육 후 이어진 시간은 힙합 교실. 처음에는 어색한 몸놀림으로 몸이 굳어 있던 아이들이었지만 전문 힙합 강사에게 기본 동작은 물론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응용 기술까지 함께 배우면서 점차 동작들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쓸어버리고" 등 강사들의 재미있는 구호와 우스꽝스러운 몸놀림에 어느덧 쑥스러움은 사라지고 아이들은 동작 하나하나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SK다큐

저녁 식사 후에는 어울림 한마당이 벌어졌는데 힙합 강사들의 화려한 공연과 학생들의 댄스 경영 대회가 이어지자 아이들의 환호는 절정에 다다랐다. 한창 어른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생활을 꾸려 나가느라 마음놓고 웃을 여유조차 갖기 힘들었던 아이들로서는 모처럼 홀가분한 마음으로 마음껏 즐긴 밤이었다.

둘째날 아침, 맨손 체조와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으로 몸을 푼 아이들은 아침 식사 후 공작 교육에 이어 건강 검진 시간을 가졌다. 평소 어려운 생활로 소홀히 했을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해 SK텔레콤의 글로벌케어 전문 의료진이 소변, 채혈 검사와 청진 등의 기초 건강 검진을 실시했던 것이다.

오후에는 에버랜드로 나들이를 떠났다. 버스 안에서 김밥을 나눠 먹는 등 한껏 소풍 기분을 낸 아이들은 사파리 월드에서 어슬렁거리는 사자와 호랑이를 보고 놀라기도 하고, 놀이 기구를 타고 함성도 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고학년 학생들은 동생들을 먼저 배려하고 잃어버릴세라 손을 꼭 잡고 다니는 등 언니, 오빠로서의 듬직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놀이 동산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두 번째 인터넷 탐험을 시작했다. 오늘의 주제는 인터넷 검색법과 도메인 활용법. 이미 지난 시간 수업으로 인터넷에 흥미를 붙인 아이들은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직접 찾는 재미에 좀처럼 정보의 바다에서 헤어 나오질 못했다.

SK다큐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은 한국성폭력연구소에서 나오신 강사와 함께 성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청각 자료와 퀴즈 등을 통해 남자와 여자의 차이와 사춘기를 겪으며 달라지는 몸의 변화 등 평소 어른께 묻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둘씩 알아갔는데, 참가자들은 때로는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도 했지만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에 집중하였다.

셋째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라인 스케이트로 하루를 시작했다. 대부분 인라인 스케이트를 처음 탔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상쾌한 아침 공기를 가르는 재미에 모두들 즐거운 표정이었다.

운동을 한 뒤에 먹는 밥이라 더욱 꿀맛 같았던 식사를 마친 후 아이들은 119 소방 체험 시간을 가졌다. 화재가 났을 때 대피 요령을 배우는 가상 훈련을 시작으로 이천소방서에서 나온 소방관 아저씨와 누나들에게 소화기의 사용법과 응급 처치 방법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소방 상식들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특히 캠프를 취재 나온 코미디언 강남영 누나가 이 시간을 함께해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고, 사인도 해주며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소방 체험을 마치고는 모두 요리사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유부 초밥, 샌드위치, 스파게티, 김말이, 닭갈비 등으로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요리 교실. 386 쿠킹 클럽 동호회에 나오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 평소 집에서 해먹지 못했던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았다. 너도나도 맛보고 썰어보고 크기도 모양도 모두 다른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SK다큐

오후에는 인터넷과 수영 수업을 가졌는데, 특히 인터넷 교육 시간에는 정보 검색 대회를 열어 그동안 배웠던 자신의 실력을 다른 친구들과 견주어 보았다. 평소에 인터넷을 가까이 했던 친구들은 모처럼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아 즐거워하였고 이제 막 인터넷에 입문한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자신의 실력 향상을 다짐하기도 한 시간이었다.

캠프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캠프파이어. 하지만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비 때문에 예정된 프로그램을 채 끝내지도 못하고 실내로 들어와야만 했다. 분위기가 깨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도 있었지만 다행히 아이들의 열기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진 힙합 댄스 경연 대회에서 아이들은 그동안 틈틈이 연습했던 자신들의 장기와 춤 실력을 뽐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프로그램의 끝에는 촛불 의식을 가졌다. 모두들 촛불을 보며 캠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 부족했던 일은 반성하고 즐거웠던 일은 가슴속 깊이 담아두었다. 아이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맡았던 캐빈 선생님 대표와 학생 대표가 서로에게 쓴 편지를 읽는 동안 내일이면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에 아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캐빈 선생님들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안아주고 다독여 주었다.

마지막날인 넷째날 아침, SK스포츠단 캐릭터와 함께하는 열띤 응원전으로 미니 올림픽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파도타기, 협동 줄다리기, 신발 찾아 삼만 리, 고릴라 구출 작전, 장애물 릴레이 등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게임을 하며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랬다.

야외 뷔페로 마지막 점심 식사를 한 후 이어진 폐영식. 정보 검색 대회의 성적 우수자 및 캠프 생활을 마감하는 여러 시상이 이어졌고, SK텔레콤 신영철 홍보팀장의 폐영사와 기념 촬영을 끝으로 사랑 희망 캠프의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마지막까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로에게 이메일과 연락처를 남기며 헤어짐에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 모두 헤어짐이 못내 아쉬웠지만 지난 3박 4일의 추억과 우정과 따뜻한 마음을 소중히 간직한 채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편지

소년소녀가장 김유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게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참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캐빈(Cabin) 선생님들께 가장 감사한 것은 캠프 기간 동안 저희를 챙겨 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한 점은 고마운 점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에서도 밤에 시끄럽게 떠들고 뛰어다녀서 선생님들의 밤잠을 깨운 것이 제일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낯설기만 했는데 어느새 편한 언니 · 오빠처럼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친근해 졌는데 내일 헤어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섭섭하고 '더 잘해 드릴 걸', '더 말 잘 들을 걸' 하는 마음이 듭니다.

첫날 환영의 밤 행사 때 선생님들께서 미숙한 노래 실력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두 번째 날 공작 시간에도 저희가 좀더 편하게 저금통을 만들게 도와 주신 것도 감사했어요. 에버랜드에 도착해서 놀이 기구를 탔을 때, 저희 팀 김대희 선생님께서는 동심으로 돌아간 듯 저희와 즐겁게 놀아 주셨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모두 그렇게 보였고요. 참 재미있었어요.

이번 캠프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참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선생님들과 헤어진다는 것이 너무 섭섭하고 집에 가는 것도 아쉽기만 해요. 다음에 만약 이런 기회가 다시 한번 있다면 또 오고 싶어요. 꼭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면, 여기 계시는 캐빈 선생님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만나고 싶어요. 뒤에서 묵묵히 일하시던 운영 캐빈 선생님들도요. 그리고 저희에게 캐빈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SK텔레콤 아저씨들에게도 감사 드려요.

선생님! 저희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요. 이런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리고요. 집에 가서도 캐빈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글을 줄이고자 합니다.

캐빈 선생님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001년 7월 25일 캠프의 마지막 밤에

캐빈 선생님들께 유진 올림

편지

캐빈 선생님 김대희

우리도 너희를 만나 행복했단다

너희를 만나서 3일이 지났을 뿐인데 어느덧 서로의 이름 하나하나를 알게 되고, 얼굴까지 기억하게 되었구나. 너희들도 어느새 서로 정을 나누고 하나가 되었는지 아픈 친구를 걱정하고 함께 어울리고…. 이제야 막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들이 생겼는데 이별해야 한다니 무척이나 서운하고 아쉽다.

비록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서로 헤어지겠지만, 그래도 지금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너희 각자의 마음 속에서, 너희들은 선생님들 마음 속에서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살아 숨쉴 것 같아.

너희들을 만나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순간부터 만날 때까지 모두 설렘에 잠을 설치기도 했고, 함께하는 동안에는 밝고 순수하고 해맑은 모습에 너희들 모두를 친동생처럼 느끼기도 했단다. 그래서인지 지금 이 순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척 슬프게 느껴진단다.

혹시 선생님들이 너무 부족한 탓에 미웠거나 섭섭한 점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구나. 하지만 우리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던 것은 너희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서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 다만 마음만 앞서서 너희들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못했던 것이 부끄럽구나. 너희들의 예쁘고 착한 마음으로 언니 · 오빠들을 이해해 주길 바래.

앞으로 너희들이 커가면서 어렵거나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함께한 캠프에서의 기억과 추억을 생각하며 힘내길 바라고, 이 시간이 지나도 우리 선생님들은 언제나 너희를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그럼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약하며….

2001년 7월 26일 사랑 희망 캠프에서

김대희 선생님이

인터뷰

소년소녀가장 강신재

3박 4일 동안 사랑과 믿음을 배웠습니다

"SK텔레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누나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신재는 처음 사랑 희망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소년소녀가장 캠프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했다. 예민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신재로서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못마땅했던 것이다. 누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화를 못 이겨 참가하기는 했지만 캠프장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별다른 기대를 갖지 않았다.

그러나 캠프장에 도착한 후 신재는 사랑 희망 캠프가 동정이나 자선이 아닌 희망 나누기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에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었다. 처음 만났으면서도 마치 친동생처럼 대해주는 캐빈 선생님들과 친구들. 충북 지역에서 온 지현이와 함께 학생 대표로 선서문을 읽으면서 앞으로의 3박 4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입영식을 마치고 캠프의 프로그램이 담긴 수첩을 펴보는 순간 신재의 막연한 기대는 현실이 되었다. 지면을 메우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모두가 자신이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 특히 유명한 발명가가 되고 싶은 신재에게 공작 시간은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인라인 스케이트, 소방 훈련, 인터넷 교육 등 진행되는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모두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는 충분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신재는 팀의 맏형으로서, 조장으로서 다른 동생들에게 많은 신경을 못 써준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더욱이 제몫을 다하지 못한 자신에게 '짱'이라고 부르며 따라준 팀원들과 자신을 버금 희망상에 추천해 주신 캐빈 선생님께는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그렇다면 이 미안한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무슨 일이 없을까? 궁리 끝에 신재는 그동안 함께한 팀원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쓰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캠프 기간 동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고, 사람에 대한 믿음도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지난 며칠 사이에 부쩍 커버린 신재. 되찾은 밝은 웃음을 간직하며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뤄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정보 꿈나무 육성을 위한 정보화 교육

소년소녀가장 사랑의 교실

소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SK텔레콤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30일부터 2주에 걸쳐 전국 130개 초등학교 전산실에서 결식아동 5000명을 대상으로 '2001 SK텔레콤 사랑의 교실'을 개최했다.

사랑의 교실은 방학중 결식아동의 급식 문제 해결과 함께 정보화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학생들을 정보화 시대의 꿈나무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사전 순회팀을 구성하여 각 학교 단위의 교육 환경과 급식 시설을 점검했으며, 내실 있는 정보화 교육을 위해 260여 명의 강사진을 구성하여 컴퓨터 기본 이론과 인터넷 검색, 이메일 사용법 등의 내용으로 1일 2시간씩 14일 동안 교육을 진행했다.

강사진들은 단순 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환경에 처한 결식아동들의 출석과 생활 지도 등도 함께 관리하고 위생 관리 및 비상 사태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그 결과 교육 기간 평균 출석률이 91%에 달하고 급식 부분 역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주)카디컴과 연계하여 공개 인터넷 교실인 '사랑의 교실(loveclass.net)'을 후원하고 있다.

소감문

부산회동초등학교 김송미

사랑의 교실에서 배운 것이 참 많았다

긴 방학이 조금씩 지루해질 무렵 시작한 사랑의 교실.

학교에 와서 점심을 먹고 컴퓨터를 배웠다. 첫날에는 파일 복사하기, 게임 복사하기, 멀티미디어에 대하여 배우기 등을 공부했는데 정말 재미있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인터넷에서 노래 듣기, 라디오 듣기, TV 다시 보기 등 재미있는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떠들어도 친절히 잘 가르쳐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셨다.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막 떠들고 장난만 치던 아이들도 나중에는 조용하고 얌전히 선생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또 어려운 내용도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일이 다 챙겨 주셨다. 덕분에 사랑의 교실 아이들은 동영상, 사랑의 교실 게임 등 사랑의 교실 홈페이지에서 정보도 얻고 홈페이지 구경도 할 수 있었다.

또 점심 때마다 따뜻한 밥과 국을 매일매일 챙겨 주시는 선생님과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아주머니들도 정말 고마웠다. 그래서 음식은 만드시는 분을 생각해 자기가 받은 건 꼭 다 먹기로 했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면서 하는 인터넷 정보나 게임 다운받기, 그림 저장하기, 그림판에서 그림 그리기 등도 재미있었다. 그러다가 남는 시간이 있으면 자유시간으로 하고 음악도 들었고 신이 난 아이들은 음악에 맞춰 추기도 했다. 특히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서로 잘 몰랐던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제일 좋았다.

약속된 2주가 흐르는 동안 사랑의 교실 아이들과 더욱 더 친해질 수 있었고, 잘 몰랐던 아이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

이제 시간이 지나 우리 모두 소감문을 쓴다. 서로 만나서 같이 보낸 시간은 며칠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배운 것도 많았고, 즐거운 일도 많아서 참 좋았다. 다음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인터넷 정보도 배우고 더욱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사랑의 교실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신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SK텔레콤에도 감사 드립니다.

부산회동초등학교 6학년1반

김송미

국제 사회공헌활동

세상 모든 사람의 행복! SK텔레콤이 지켜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기술 발전을 통한 전세계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국제 사회공헌활동 체계를 구축한 SK텔레콤은 지역 내의 문제를 세계 공론화시키고 그 대안을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현지인을 위한, 현지인의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아울러 전세계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충실, 베트남 얼굴 기형 어린이 무료 시술 등 여러 활동을 지원했다.

베트남 어린이에게 밝은 웃음을

베트남 얼굴 기형 어린이 무료 시술

2001년 5월 21일부터 30일까지 세민얼굴기형돕기회와 공동으로 베트남 얼굴 기형 어린이 무료 시술을 펼쳐 200여 명의 어린이에게 밝은 웃음을 되찾아 주었다.

이번 무료 시술은 베트남 현지에 거주하는 얼굴 기형 어린이 가운데 의사의 소견과 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모든 경비는 SK텔레콤에서 지원하였다.

199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고 있는 베트남 얼굴 기형 어린이 무료 시술은 사회 · 경제적 이유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1250명의 베트남 꿈나무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하고, 더 나아가 우리 나라와 베트남 두 나라 사이의 우호 관계 증진에도 일조를 하여 민간 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

베트남 얼굴 기형 어린이 무료 시술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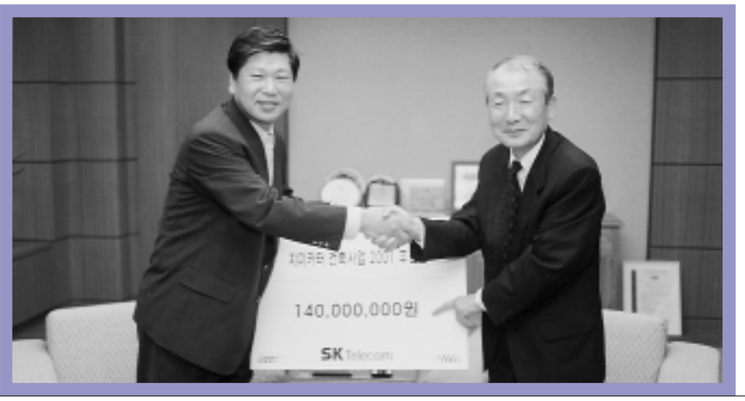
시기	장소	시술 인원
1996년 5월	하노이	193명
1997년 5월	후에	250명
1998년 6월	하노이	155명
1999년 6월	호치민	200명
2000년 6월	호치민	252명
2001년 5월	호치민	200명
총계		1250명

이웃을 위한 나눔의 실천

사랑의 집짓기 후원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열려라 더 큰 세상의 집' 이라는 슬로건 아래, 불우 청소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본부에 1억 400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하였다.

전달된 후원금은 아산 주 사업지와 군산 위성 사업지에 총 2세대의 집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10%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저개발국의 건축 지원에 활용되었다.



지구촌 가족을 향한 무한한 사랑

몽골 소녀 수술비 지원

SK텔레콤은 선천성 수지 기형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몽골 소녀 제치크(9세)의 수술비를 지원했다. 선천성 수지 기형이란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갈라지지 못하고 하나로 붙어 태어나는 기형인데, 특히 제치크는 손가락뿐 아니라 발가락까지 모두 붙어 있을 정도로 증상이 심한 상태였다. 제치크의 가족은 제치크의 수술을 위해 국내에 입국했지만 1000만 원이 넘는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로 생활하고 상태였다.

이런 어려운 사정을 접한 SK텔레콤은 2001년 4월 글로벌케어를 통해 제치크의 수술 비용을 지원했다. SK텔레콤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수술을 받은 제치크는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가슴 가득 담고 몽골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외에도 SK 텔레콤은 불의의 재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세계 난민들에게 재난 극복의 용기를 주기 위해 구호금을 지원했다. 특히 2001년 2월에는 인도 지진 참사와 관련하여 주한 인도 대사관에 미화 10만 달러를 기증하고 고통을 함께하기도 했다.

기타 사회공헌활동

이웃과 함께하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세상!
SK 텔레콤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열려라 더 큰 세상'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보 격차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사랑을 나누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사내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솔선수범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에 임하는 임직원 역시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정성으로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의료의 손길을

소외 계층 무료 이동 진료 지원

의료 전문 NGO인 글로벌케어는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 계층이 보다 가깝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검진, 진료 등의 활동을 펼치는 '소외 계층 무료 이동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외된 이웃에게 의료의 손길을'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이동 진료는 무의탁 재가 노인, 소년소녀가장, 외국인 근로자, 기지촌 여성, 장애인, 무의촌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X-ray, 초음파, 혈액 검사 등의 각종 검진과 전문의와 간호사를 통한 진료 및 간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의 경우 인근 지역의 글로벌케어 회원 병원과 연결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수술을 지원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글로벌케어 무료 이동 진료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소외 계층의 건강한 웃음을 위해 1999년부터 이동 진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월에는 최첨단 의료 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기증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그 결과 2001년 현재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무료 이동 진료의 혜택을 받았으며 그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소외 계층 무료 이동 진료 지원 내역

연 도	내 용
1999년	● 수해 지역 의료 지원 ● 외국인 노동자 진료 사업 ● 실직 가정 건강 검진 사업 ● 불우 아동 건강 관리 사업
2000년	● 독거 노인 진료 ● 기지촌 여성 진료 ● 장애인 진료 ● 소년소녀가장 진료 ● 외국인 근로자 진료 ● 아동 진료 ● 긴급 구호 사업(고성 산불) ● 구치소 진료
2001년	● 독거 무의탁 노인 진료 ● 기지촌 여성 진료 ● 장애인 진료 ● 지하철역 건강 상담 ● 불우 이웃 치료 및 수술비 지원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행복

011 행복펀드 조성 및 집행

SK텔레콤은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총 21일 동안 011 행복펀드 행사를 펼쳐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을 실천했다. 011 행복펀드는 고객의 1통화당 1원씩 적립하는 011 해피콜과 고객이 핸드폰 줄을 구입하면 금액의 2배가 적립되는 행복줄 판매, 전 국민이 연예인들과 함께 참여하는 행복런닝 페스티벌의 3가지 기본 펀드가 운영되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벼 수확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을 때 적립되는 행복기원펀드, 행사 기간 중 박찬호 선수나 LPGA 출전 선수들이 승리했을 때 그 횟수에 따라 적립되는 행복럭키펀드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행복펀드 참여 코너를 마련하여 행사 기간 중 총 참여자 수가 1만 명이 넘을 때 SK텔레콤이 100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는 행복엔탑펀드의 보너스 펀드도 진행하여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10월 14일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의 후원으로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011 해피런닝 페스티벌은 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영화배우 한석규 · 임은경, 용인대 휠체어 농구단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8㎞ 달리기, 모바일 달리기, 휠체어 체험 달리기, 가족 걷기 4개 부문으로 진행되어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011 행복펀드 행사를 통해 모아진 약 10억 원의 적립금은 한국복지재단, 한국장애인총연맹, 녹색연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통부 산하 정보문화센터, 글로벌케어에 각각 전달되어 소외 계층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과 소년소녀가장, 무의탁 노인, 기지촌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이동 진료 사업 등에 지원되었다.

농어촌 정보화 지원과 고통 나누기

농어촌 지원 사업

우리 생활의 터전인 농어촌과 도시와의 정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SK텔레콤은 농어촌 벽지 초등학교에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함께 나눔으로써 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농어촌 벽지 초등학교 정보화 무료 순회 교육

정보 혜택의 지역차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는 SK텔레콤은 2001년 7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지난해 PC를 지원한 전국 580여 개의 농어촌 초등학교 중 250개 수혜 학교를 대상으로 PC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무료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35명의 전담 강사가 전국을 순회하며 새롭게 제작된 전문 교재를 이용하여 윈도우 98 시작 및 사용, 제어판 활용, 문서 작성, 컴퓨터 활용, 인터넷 활용법 등을 교육한 이번 교육은 단순한 PC 지원에서 진일보하여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농민과 함께하는 011 사랑의 쌀

쌀 소비 감소로 풍년의 기쁨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농촌 지역을 돕기 위해 2001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민과 하나되는 011 사랑의 쌀' 이라는 슬로건 아래 농협을 통해 50억 원 상당의 쌀을 구입, 011 신규 가입 고객에게 증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쌀 소비 추진 차원에서 기획된 이 행사는 011 신규 가입 고객 1인당 10kg씩 지급되었는데 고객이 직접 수령하거나 소외 계층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우이웃 돕기 운동으로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농민의 시름을 함께하는 동시에 불우한 이웃에게 따스한 손길을 펼친 이 행사는 '생활 속 나눔의 운동' 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었으며, 기부받은 쌀은 한국복지재단과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 시설 등을 통해 소년소녀가장, 무의탁 노인 등에게 전달되었다.

장애인을 위한 최첨단 시스템 구축

장애인 전자 도서관 구축 지원

사회 소외 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라는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에 주력해 온 SK텔레콤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가 추진하는 장애인 전용 인터넷 전자 도서관(www.opendigital.or.kr) 사업에 7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01년 8월 9일 SK텔레콤 본사에서 지원금을 전달했다.

국내 최초로 장애인을 위해 구축되는 인터넷 전자 도서관은 전자 도서 5만 권, 시각 장애인 녹음 도서 500권, 시각 · 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상물 등을 갖추고 인터넷 상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2002년 7월부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평소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사이버 공간에 만드는 도서관인 만큼 시각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인식 기능, 스크린 음성 리더 기능 등을 갖추고 멀티미디어 자료의 자막 처리, 장애인용 특수 입력기 호환 기능 등도 활용하여 장애와 소외 없는 사이버 세상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어려운 이웃을 보듬는 따뜻한 손길

김장 배추 이웃돕기

SK텔레콤은 2001년 11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배추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지 농민의 시름을 덜고 생활고로 더욱 추운 불우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김장 배추 이웃돕기 행사를 벌였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를 통해 SK텔레콤 수도권 지사 내 8개 영업센터와 YMCA, YWCA 및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불우이웃에게 총 5만 3900포기의 김장 배추와 양념비가 지원되었으며, 몸이 불편하여 직접 김치를 담그지 못하는 이웃에게는 각 단체에서 지원한 1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김장 김치를 담가주어 불우이웃들의 수고를 덜어주기도 했다.

소외없는 정보화 세상을 위하여

소외 계층 정보화 PC 지원

신체적·환경적 장애를 뛰어넘어 모두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정보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SK텔레콤은 노인, 장애인, 불우 청소년, 재소자 등 소외 계층에게 PC를 지원함으로써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는 힘을 함양하고 있다.

법무부 소년원 재소자 교육용 PC 지원

2001년 4월 25일, SK텔레콤은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정보화 교육장에서 청주, 대덕, 춘천, 전주 등 법무부 소속 4개 소년원에 PC 50대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한때의 실수로 법원에서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은 어린 학생들이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1558 전국 단일망 장애인 상담 전용 PC 지원

장애인들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장애인들의 재활과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추진한 1558 전국 단일망 장애인 상담 전화에 상담 전용 PC를 기증하였다.

노인 정보화 PC 지원

SK텔레콤은 011 행복펀드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금 5억 원을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센터에 기부하여 노인 정보화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기부금은 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은 민간 교육 기관과 노인 정보화 교육 사업 전담 기관에 PC, 프린터, 소프트웨어 등의 형태로 지원되었다.

YMCA 불우 청소년 정보화 교육용 PC 지원

YMCA가 펼치고 있는 청소년 정보화 사업에 동참하여, PC 60대와 스캐너 60대를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된 PC는 서울 및 지방의 YMCA 청년회 60개소의 청소년 정보 네트워크 구축에 사용됨으로써 다양한 청소년 정보화 교육 자료의 온라인화와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공유 및 온·오프라인 상의 각종 교육에 보탬이 되었다.

사회 전반에 걸친 SK텔레콤의 노력

문화 · 예술/학술/체육 사업 지원

주력 사업인 소외 계층 정보화 사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SK텔레콤은 다양한 협찬 및 기부 등을 통해 문화 · 예술/학술/체육 사업 등에도 꾸준한 지원을 펼쳐 왔다. 이는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욱 발전되고 세계화된 사회 자산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으로 사회 전 분야를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문화 · 예술 분야

2001년 2월에는 '희망의 꽃씨 나누기'를 지원했으며 이후로도 '화개장터 벚꽃 축제', '전주 국제 영화제', '안면도 꽃 박람회', '세계 도자기 엑스포' 등 많은 문화 행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리 문화의 현주소를 정립하고 세계에 알리는 일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극단 사조의 연극 〈불타는 소파〉, 호남오페라단의 〈유쾌한 아낙네〉, 문화일보 주최의 보스턴팝스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국립발레단의 〈스파르타쿠스〉, 고려문화예술의 오페라 〈안중근〉 등 수많은 공연을 협찬함으로써 시대의 반영이라는 거침없는 창작과 표현이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특히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극회 '또아리' 정기 공연 협찬, 성균관대학교 방송제 협찬 등 대학인들의 행사를 지원하여 우리 문화의 바탕이 될 건전하고 젊은 문화의 양성에 이바지하였다.

이외에도 '한미 우호의 밤'과 '한중 연예 문화의 밤', '한중 청소년 문화 축제' 등에 대한 지원은 국제적 문화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학술 분야

SK텔레콤은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의 학술 세미나, 한국통신학회의 종합 학술 발표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의 추계 학술 대회 등 대학을 비롯한 각 단체들의 심포지엄이나 연구 · 출판을 지원함으로써 학술 분야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저변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였다.

체육 분야

체육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는 SK텔레콤은 '전국 휠체어 농구 대회'를 비롯하여 '대학 농구 연맹전', '태권도 겨루기 대회', '길거리 농구 대회' 등을 지원했으며 특히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과 '동아 경주 오픈 마라톤', 'SK텔레콤 오픈 골프' 등 전국민적인 행사에 대해서 매년 지원을 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웃과 함께하는 진실된 사랑 나눔

지사별 자원봉사활동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열린 정보화 세상!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대응으로 SK텔레콤 자원봉사단을 결성하고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총 6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SK텔레콤 자원봉사단은 전국의 각 지사별로 총 11개 봉사 그룹과 이들을 상호 연결시켜 주는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임직원들은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회사측에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자원봉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1년 7월 7일에는 본사 그룹 경영지원팀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목욕탕과 옥상 등 센터 내부를 청소하고, 복지센터 회원들의 전산 입력을 도왔다. 특히 많은 인력과 노력이 요구되는 센터 내 도서관 정리를 실시하여 소장되어 있는 도서들을 목록별로 분리하기도 했다.

또한 부산 지사 그룹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매월 1회씩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위치해 있는 천성아동재활원을 방문하여 청소와 산책 그리고 그림 그리기 등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외에도 중부 지사 그룹에서는 11월 23일, 독거노인들을 위한 생신 잔치를 열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소감문

부산 지사 김진남

그 맑은 웃음을 지켜주고 싶어요

오랜만에 다시 찾는 재활원이라 그동안 찾지 못했던 미안함과 '작년에 친했던 아이들이 아직 잘 있을까?' 하는 궁금증 그리고 다시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설렘으로 마당에 들어섰다.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부터 간단한 교육을 받고 바로 내가 즐겨 찾던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예전에 있던 아이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간 모양이었다. 다만 말도 못하고 하루종일 누워만 있는 지체 장애인 주란이만이 그저 반갑다는 눈웃음과 알고 있다는 약한 소리만 할 뿐이었다.

그동안 몰라보게 많이 큰 주란이가 어딘가 마음이 편치 않은지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단다. 말을 못하니 왜 밥을 안 먹는지 알 수가 없어 재활 선생님도 걱정하는 눈치였다. 주란이의 잘린 다리를 주물러 주고, 말은 못하지만 느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다. 저녁에도 주란이는 밥을 먹지 않았다.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거동이 가능하고 약간의 의사 소통이 가능한 아이들은 우리가 나눠준 스케치북과 크레파스 등으로 추석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서로 웃고 상대의 그림을 가지고 장난을 치며 말 그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 그 맑은 웃음에 내 마음까지 포근해지는 것 같았다.

한편에서는 추석 송편을 빚고 준비해 갔던 떡을 먹느라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 이러한 즐거운 소동 중에서도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친구들. 즐거운 웃음 끝에는 알 수 없는 착잡함이 남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살아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행복한 사람일 수 있을 거라며 위로해 주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이 안타까웠다.

역시 힘든 일은 목욕시키는 일이다. 인지 감각은 아이들 수준이지만 남녀 구분 역시 명확히 해야 한다. 본의 아니게 누드를 봐야 하는 이유로 아직 난감한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힘든 자원봉사활동 중의 양념이 되어 준다.

일손이 많이 부족한 복지시설은 식사 시간이 가장 분주하다. 일손을 거들기 위해 찾은 자원봉사자들이지만 대부분 식사 전에 가버려 손발이 불편해 누워 있는 장애우들의 식사를 돕기 위해서는 일손이 모자란다. 이를 잘 아는 우리 봉사단은 꼭 식사 시간에 맞춰 식사 도우미로서의 손길을 보태고 돌아온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것만큼 친해지기 쉬운 일은 없다.

식사를 돕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정성으로 조심스럽게 젖을 먹이듯 조심조심 밥을 먹여야 하는데, 특히 누워서 식사를 해야 하는 장애우들은 수저를 물어 이를 다치지 않도록 목 저 안쪽으로 적당량을 빨리 넣어주어야 하고 사레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소화도 시킬 겸 아이들과 잠시 놀이 시간을 갖는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고 술래잡기 등을 하는 동안 우리 자원봉사단은 오늘 하루를 감사히 보낸다. 그리고 언제나 웃으며 반겨주시는 전도사님의 전송을 뒤로 하고 재활원 문을 나섰다.

소감문

본사 경영지원팀 류재홍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웠습니다

2001년 7월 7일 토요일

찌는 듯이 무더운 날씨였지만 노란색 티셔츠로 갈아입은 팀원들의 모습이 활기차 보였고, 같은 옷으로 통일된 모습에서 큰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회사에 앉아서 남들이 하는 봉사활동만 보아왔던 나로서는 처음으로 체험하는 봉사활동의 모든 것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도착한 곳은 종로 5가 노인복지센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반갑게 맞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예상보다 훨씬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또 그 많은 인원에 제공되는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담당자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배당 받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옥상과 목욕탕 청소 그리고 도서관의 책 목록을 정리하는 일. 옥상은 뜨거운 햇볕과 옥상 슬래브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 때문에 맨발로 걸어다니기조차 힘든, 말 그대로 찜통이었다. 하지만 소방 호스로 물을 뿌리며 쓸고 닦고…. 어느덧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마음으로는 시원함과 상쾌함을 느낄 수 있었다.

옥상의 의자들도 그동안 청소를 하지 않아서 찌든 때가 끼어 있어 있었다. 처음에는 200여 개나 되는 의자를 전부 닦을 일이 막연하게만 느껴졌지만 이왕에 시작한 일이니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하고 싶었다. 우리는 3개 조로 나뉘어 의자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1조는 수세미로 닦고, 2조 세척, 3조는 미흡한 부분을 다시 수세미로 닦았다. 어느덧 의자들은 깨끗한 모습으로 바뀌어 갔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나가실 때는 뿌듯한 마음도 들었다. 물론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기분은 좋았다.

옥상 청소, 목욕탕 청소, 빨래 등을 마치고는 도서관에서 도서 목록을 정리했다. 많은 책의 목록을 적다보니,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힘들었지만 봉사활동이 평소에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는 장이 되어준 것 같아 오히려 고마운 생각도 들었다.

일을 하다보니 어느덧 6시가 훌쩍 넘어 버렸다.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은 많이 남아 보였다. 처음에는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으랴?' 라는 생각이었지만 찾아보면 우리가 도와줄 일은 얼마든지 있었다.

더운 날씨에 고생스런 하루였지만, 귀가할 때의 기분은 말할 수 없이 뿌듯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다는 마음에 나 자신은 물론 함께 일한 동료들의 얼굴들이 자랑스러워 보였다. 또한 노란색 티셔츠의 왼쪽 가슴에 있는 'SK텔레콤' 이라는 마크가 그날따라 매우 자랑스러워 보였다.

제3부

2001년 SK텔레콤 사회공헌활동 상세자료

- 전국 특수학교 명단
- SK텔레콤 '사랑의 교실' 개설 학교 명단
- 농어촌 벽지 초등학교 정보화 무료 교육 명단
- 2001 SK텔레콤 기부 및 협찬 현황

3

전국 특수학교 명단

지역	학교명	장애 영역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강원	강릉오성학교	정신지체	210-140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306-6	031-651-1271
	강원명진학교	시각장애	200-939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399-7	033-253-3011
	원주청원학교	정신지체	220-935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481-4	033-745-0612
	춘천계성학교	청각장애	200-955	강원도 춘천시 후평2동 21-2	033-256-405
	춘천동원학교	정신지체	200-824	강원도 춘천 신북 천전6리 70-2	033-242-6114
경기	동방학교	지체, 정신	450-080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106-1	031-651-1271
	동현학교	정신지체	464-870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연곡리 산2	031-764-0982
	명현학교	정신장애	421-880	경기도 고양 덕양 삼송 99-11	02-381-6587
	명혜학교	지체부자유	425-220	경기도 안산시 사동 1273	031-406-1137
	밝은학교	정신, 정서	411-420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법곳동 438-1	031-911-7060
	부천혜림학교	정신지체	422-821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23-99	031-666-7994
	삼육재활원	지체부자유	464-860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729-6	031-761-363
	새얼학교	정신장애	413-873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428-1	031-958-7003
	성광학교	정신지체	465-110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390	031-791-8181
	성남혜은학교	정신지체	461-80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92	031-734-1128
	성심학교	정신지체	447-150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90	031-376-4694
	성은학교	정신지체	463-0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722	031-706-6983
	수원서광학교	정신, 청각	440-31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130	031-256-8005
	에바다학교	청각장애	451-860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72	031-668-6675
	인덕학교	정신지체	464-804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탄벌리 674-1	031-763-6182
	자혜학교	정신지체	441-44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508-6	031-292-2579
	창인학교	정신지체	476-850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덕수리 213-2	031-774-7955
	한국경진학교	정서장애	411-350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808	031-906-9814
	한국선진학교	정신지체	425-807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723-2	031-409-2193
	한사랑학교	뇌성, 정신	464-864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신월리 333번지	031-794-211
경기	한우리학교	청각장애	445-960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관항리 338-6	031-352-3090
	해원학교	정신지체	445-941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어은리 300	031-351-0805
	홀트학교	정신지체	411-320	경기도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산41	031-915-2912
	희망학교	발달, 정서	480-82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86-4	031-829-8511
경남	거제애광학교	정신지체	656-910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521-4	055-681-7526
	경남은광학교	지체, 정신	636-821	경남 의령군 가례면 운암리 117-1	055-572-8435
	경남천광학교	정서, 청각	641-800	경남 창원시 가음동 11-2	055-283-2997
	경남혜림학교	정신지체	630-815	경남 마산시 회원구 합성1동 599	055-251-3141
	진주혜광학교	지체, 정신	660-844	경남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706	055-761-5751
경북	경북영광학교	정신지체	770-881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 646	054-331-6501
	경희학교	지체, 정신	780-934	경북 경주시 동천동 733-6	054-749-1541
	구미혜당학교	정신, 청각	730-160	경북 구미시 지산동 산15	054-455-1727
	상희학교	지체, 정신	742-903	경북 상주시 남성동 118	054-534-8790
	안동영명학교	정신장애	760-890	경북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 501	054-841-8201
	안동진명학교	정서, 청각	760-270	경북 안동시 평화동 382-1	054-854-4301
	포항명도학교	정신, 청각	791-813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273	054-248-5370
광주	광주선광학교	정신지체	506-307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303	062-951-0556
	광주선명학교	정신지체	503-311	광주시 남구 주월1동 446-1	062-652-4547
	광주세광학교	시각장애	502-290	광주 서구 덕흥동 953-2	062-374-6172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	504-454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603-1	062-943-0231
	은혜학교	지체부자유	500-480	광주시 북구 오룡동 산8	062-971-1004
대구	대구광명학교	시각장애	705-823	대구시 남구 대명3동 2288	053-626-5832
	대구남양학교	정신지체	706-090	대구 수성구 지산1동 1022	053-762-5256
	대구덕희학교	정서장애	705-823	대구시 남구 대명3동 2288	053-650-8431
	대구보건학교	지체장애	705-823	대구시 남구 대명3동 2288	053-650-8426
	대구보명학교	정신지체	705-823	대구시 남구 대명3동 2288	053-624-9407
	대구선명학교	정신지체	706-220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28-1	053-791-4236
	대구성보학교	지체부자유	702-830	대구시 북구 복현2동 312	053-953-7611
	대구영화학교	청각장애	705-823	대구시 남구 대명3동 2288	053-628-6671
대전	대전맹학교	시각장애	300-050	대전시 동구 가오동 171-1	042-285-5002
	대전성세재활학교	지체부자유	305-363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319-3	042-543-2151
	대전원명학교	정신, 청각	306-801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39-1	042-621-5074
	대전혜광학교	정신지체	300-050	대전시 동구 가오동 산13	042-285-0253
부산	천사의학교	정신지체	604-082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352-116	051-208-9497
	부산구화학교	정신, 청각	608-026	부산시 남구 대연6동 1600-26	051-642-7100
	부산동암학교	정서, 정신	611-810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10-51	051-758-1711
	부산맹학교	시각장애	607-112	부산시 동래구 명장2동 산85-1	051-524-1047

지역	학교명	장애 영역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부산배화학교	청각장애	613-131	부산시 수영구 망미1동 789	051-755-1136
	부산혜남학교	지체부자유	608-026	부산시 남구 대연6동 산64	051-637-6052
	부산혜성학교	정신장애	608-026	부산시 남구 대연6동 산64	051-637-6211
	부산혜송학교	지체, 정신	602-841	부산시 서구 남부민3동 611-43	051-600-6701
	부산혜원학교	정신지체	618-803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393-20	051-972-4861
	은애학교	정신지체	609-815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969-16	051-516-1430
서울	광성하늘빛학교	정서, 정신	138-879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474-1	02-474-1004
	광성해맑음학교	정서, 정신	156-811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5-2	02-813-8386
	교남학교	정신장애	157-913	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960-22	02-2607-2456
	다니엘학교	정신지체	137-180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1328	02-445-9436
	밀알학교	정서장애	135-942	서울시 강남구 일원본동 713	02-3412-1133
	서울광진학교	정신지체	143-831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87-52	02-455-2108
	서울동천학교	정신지체	139-230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88-1	02-974-9576
	서울맹학교	시각장애	110-032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 1-4	02-737-0656
	서울명수학교	정신장애	136-824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26-220	02-762-8049
	서울삼성학교	청각장애	156-841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212-128	02-823-7430
	서울선희학교	청각장애	110-032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 1-1	02-737-0378
	서울애화학교	청각장애	142-807	서울시 강북구 미아3동 124-2	02-987-5162
	서울인강학교	정신지체	132-806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381-1	02-955-0524
	서울정문학교	정신지체	151-885	서울시 관악구 신림7동 673-82	02-869-7188
	서울정민학교	정신지체	139-231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53-1	02-978-8405
	서울정애학교	정신지체	135-09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4-13	02-540-7826
	서울정인학교	정신지체	142-886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91-16	02-983-4321
	서울정진학교	정신지체	152-884	서울시 구로구 궁동 242	02-688-1304
	성베드로학교	정신지체	152-140	서울시 구로구 항동 1-1	02-2612-6413
	수도사랑의학교	정서, 정신	110-054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62-57	02-739-9868
	연세재활학교	지체장애	120-752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 134 연세의료원	02-361-7581
	은평복지학교	정신지체	122-822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91-1	02-353-2040
	주몽학교	지체, 정신	134-837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79	02-3427-1323
	한국구화학교	시각, 청각	134-803	서울시 강동구 고덕2동 297	02-428-0873
	한국우진학교	지체부자유	121-877	서울시 마포구 중동 64-2	02-304-6253

지역	학교명	장애 영역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한국육영학교	정서장애	138-210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45-4	02-443-9781
	한빛맹학교	시각장애	142-875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4-21	02-989-9135
울산	메아리학교	지체, 청각	683-809	울산시 북구 중산동 492-2	052-295-8286
	태연학교	정신지체	683-260	울산시 북구 산하동 161-1	052-298-3703
인천	인천성동학교	청각장애	403-831	인천시 부평구 부평2동 756	032-524-3528
	인천연일학교	정신지체	406-113	인천시 연수구 연수3동 580-1	032-816-6473
	인천예림학교	정신지체	403-828	인천시 부평6동 633	032-502-0804
	인천혜광학교	시각장애	03-843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85	032-522-8345
전남	인천은광학교	지체부자유	403-811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47	032-503-8932
	인천인혜학교	정신지체	407-470	인천시 계양고 장기동 6-18	032-518-8552
	덕수학교	정신장애	527-810	전남 강진군 성전면 송월리 40-2	061-432-4901
	목포소림학교	청각장애	526-890	전남 영암군 삼호면 난전리 85-1	061-462-5532
	순천선혜학교	청각, 정신	540-966	전남 순천시 조례동 845	061-721-2001
	여수여명학교	정서, 정신	550-817	전남 여수시 문수동 640-2	061-651-6536
	은광학교	시각장애	526-890	전남 영암군 삼호면 산호리 442-3	061-462-5602
전북	인성학교	정신지체	530-828	전남 목포시 석현동 31-8	061-282-1105
	함평영화학교	정신지체	525-800	전남 함평군 함평읍 진량리 744-1	061-323-9889
	군산명화학교	정신장애	573-869	전북 군산시 나운1동 801	063-462-2159
	동암재활학교	지체부자유	560-243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15-5	063-223-4443
	전북맹아학교	시각장애	570-330	전북 익산시 석암동 산41-77	063-835-1763
	전주선화학교	청각장애	560-243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130	063-223-6195
	전주은화학교	정신지체	560-243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059-2	063-222-6870
	전주자림학교	정신지체	560-243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478-16	063-223-9339
제주	전북재활학교	지체부자유	565-860	전북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산15-7	063-263-2600
	전북혜화학교	청각, 정신	570-310	전북 익산시 덕기동 751-5	063-835-3207
충남	제주영송학교	정신지체	695-902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2리 2539	064-748-2064
	제주영지학교	종합	690-022	제주시 제주군 이도2동 690	064-755-2004
	공주정명학교	정신지체	314-910	충남 공주군 장기면 송선리 101-1	041-857-1522
	보령정심학교	정신지체	355-920	충남 보령군 주교면 관창리 산14	041-931-1715
	서산성봉학교	정신장애	356-853	충남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35-1	041-669-2261
	천안인애학교	정신지체	330-830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소우리 182-4	041-583-4008

지역	학교명	장애 영역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나사렛새꿈학교	발달, 정신	330-946	충남 천안시 쌍용동 456	041-570-7749
	꽃동네학교	지체, 정신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235	043-882-5813
충북	숭덕학교	지체장애	380-960	충북 충주시 봉방동 404-1	043-852-6943
	제천청암학교	정신지체	390-270	충북 제천시 흑석동 45-1	043-648-0696
	청주맹학교	시각장애	60-081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 185-2	043-224-1103
	청주성신학교	정서장애	361-83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46	043-266-7974
	청주혜원학교	정신지체	360-8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7-1	043-255-6881
	청주혜화학교	지체장애	363-810	충북 청원군 남이면 구암리 275	043-233-016
	충주성모학교	시각장애	380-966	충북 충주시 호암동 42-9	043-852-1440
	충주성심학교	청각장애	380-952	충북 충주시 교현2동 640-2	043-852-1374

SK텔레콤 '사랑의 교실' 개설 학교 명단

번호	학교명	지역	주소	담당 교사	연락처	교육 인원
서울	고덕초교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158	김미연	02-481-2660	40
	상봉초교	서울시	중랑구 상봉1동 312	강문숙	02-493-9197	42
	은천초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622	홍영기	02-887-5174	40
	창도초교	서울시	동봉구 방학동 722	조은경	02-3491-4412	29
부산	대천초교	부산시	남구 대연 3동 567	장현진	051-622-2033	40
	동명초교	부산시	연제구 연산 6동 1748	노희정	051-862-3983	40
	사상초교	부산시	사상구 덕포1동 693	한지연	051-303-3073	44
	연제초교	부산시	연제구 연산 5동 1300	안은진	051-863-4058	40
	회동초교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435-6	손은연	051-525-2902	38
	영도초교	부산시	영도구 신선1가 100	민지윤	051-417-9737	40
	낙동초교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13-6	정도영	051-207-4914	40
	상리초교	부산시	영도구 동삼1동 147	김인애	051-405-9074	4
	양덕초교	부산시	북구 덕천2동 산812	이옥희	051-331-4953	40
	학진초교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25-12	손민정	051-322-3674	40
	내성초교	부산시	동래구 복천동 72	김은경	051-555-9607	40
	부민초교	부산시	서구 부용동2가 11번지	김경희	051-245-9193	35
	성남초교	부산시	동구 범일2동 305번지	김선아	051-631-0250	26
대구	동대구초교	대구시	동구 신암3동 208-1	이현아	053-953-8958	80
	신암초교	대구시	북구 대현1동 14	강민정	053-954-9667	80
	남도초교	대구시	남구 대명5동 1709	엄영주	053-624-1897	80
	남산초교	대구시	중구 남산2동 122	김예진	053-254-0534	57
	대남초교	대구시	달서구 송현1동 1961	박은정	053-651-1460	40
	대덕초교	대구시	남구 대명11동 1571-1	김미정	053-622-6815	50
	서평초교	대구시	서구 평리6동 1500	정수미	053-565-7706	45
	월배초교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57-1	유경희	053-641-2999	42
	이현초교	대구시	서구 평리5동 1500	류봉선	053-562-4844	40
	효동초교	대구시	동구 효목1동 214-10	이은영	053-953-6790	22
	동천초교	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 9	권영민	053-755-0278	36
	태전초교	대구시	북구 태전동 957	박현미	053-321-3287	41
인천	당하초교	인천시	서구 당하동 910-6	김선미	032-568-0244	40
	마곡초교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70	조정미	032-527-7344	40
	서화초교	인천시	남구 도화5동 51	정정옥	032-866-1328	45
	용마초교	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 176-4	이선영	032-523-2478	40
	부광초교	인천시	부평구 부개3동 69-6	김주아	032-515-9934	40
	부평북초교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10	이민정	032-516-4850	90
	용현초교	인천시	남구 용현5동 610	현명화	032-883-8371	40
	축현초교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405-5	김정희	032-834-7854	60
	송월초교	인천시	중구 전동 25	김해숙	032-773-0495	44
	함박초교	인천시	연수구연수1동 535	김부경	032-821-9184	40
광주	백운초교	광주시	남구 백운동 217	강옥희	062-673-5731	48
	남초교	광주시	동구 소태동 566-2	임선옥	062-442-6521	40
	장원초교	광주시	동구 산수2동 102	양진아	062-261-3536	30
	각화초교	광주시	북구 각화동 215	나은영	062-264-9157	40
	대성초교	광주시	남구 서동 111	문희영	062-653-9848	40
	농성초교	광주시	남구 월산동 914-1	정민주	062-367-1929	44
	오정초교	광주시	북구 오치동 1038-1	임선진	062-264-0607	40
	제석초교	광주시	남구 주월1동 1053	김은영	062-652-3394	40

번호	학교명	지역	주소	담당 교사	연락처	교육 인원
	두암초교	광주시	북구 두암동 400	정진욱	062-262-4612	40
	양산초교	광주시	북구 양산동 283-1	이선주	062-572-3732	50
	진월초교	광주시	남구 진월동 357	정혜진	062-653-9228	30
대전	만년초교	대전시	서구 만년동 280	김정희	042-484-7141	40
	화정초교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93-1	오진숙	042-634-9115	30
울산	내황초교	울산시	중구 반구동 395	류은경	052-297-7108	38
	상진초교	울산시	동구 화정동 894	손무성	052-234-6056	45
	야음초교	울산시	남구 야음2동 865-17	강수희	052-267-9410	38
	약사초교	울산시	동구 약사동 707-2	송지희	052-296-6383	40
	전하초교	울산시	동구 전하1동 549-5	김정미	052-251-1502	38
	약수초교	울산시	북구 중산동 591	김혜숙	052-298-6697	25
	양사초교	울산시	중구 교동 281	최은실	051-243-9774	34
강원	초당초교	강릉시	초당동 산16	황순남	033-653-5567	40
	중앙초교	속초시	중앙동 509-3	이은녀	033-632-0528	30
경기	수진초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3756	성경희	031-756-9790	26
	광일초교	경기도	광명시 광명6동 365	선규용	02-686-2997	40
경상	구미초교	경북	구미시 원평2동 210-5	유광희	054-458-0393	80
	상모초교	경북	구미시 상모동 1	정순애	054-465-1348	80
	고령초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 151	배계화	051-954-2739	70
	점촌초교	경북	문경시 모전동 7	김미진	054-553-8970	40
	호서남초교	경북	문경시 흥덕동 348	최혜경	054-552-0160	40
	모암초교	경북	김천시 모암동 89-61	배영주	054-432-5037	40
	서부초교	경북	경산시 옥산동 736-1	조신혜	054-816-7238	92
	중앙초교	경북	경산시 중방동 331	박경숙	053-816-4345	40
	하양초교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33-2	신창숙	053-854-9309	40
	자인초교	경북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 358-2	박란식	053-854-7701	50
	경산초교	경북	경산시 삼문동 21	김우경	053-816-8319	40
	압량초교	경북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601	성은경	053-818-7952	30
	현흥초교	경북	경산시 압량면 현흥리 653	임미리	053-818-4669	20
	영남초교	경북	안동시 안기동 915-1	김춘아	054-852-3199	30
	산대초교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동 2387	박정선	054-762-9125	40

번호	학교명	지역	주소	담당 교사	연락처	교육 인원
	성주초교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169	장명숙	054-931-7180	22
	영해초교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1리 391	김일심	054-732-7925	38
	대해초교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3-1	황연옥	054-281-6855	35
	영흥초교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1동 26지	박동남	054-283-9729	36
	대도초교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31번지	하우영	054-283-9729	40
전라	동초교	전남	목포시 산정3동 270-1	조성희	061-274-6366	40
	동초교	전남	광양군 광양읍 인서리 214	채현주	061-762-3669	31
	남초교	전남	여수시 국동 511-2	최연희	061-643-9886	30
	도원초교	전남	여수시 선원동 1325-1	김지선	061-681-1669	40
	신월초교	전남	여수시 신월동 9-22	조세정	061-643-3312	40
	중앙초교	전남	순천시 풍덕동 889	김영옥	061-743-5257	40
	금당초교	전남	순천시 연향동 1516	이희경	061-722-0491	30
	연향초교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88	김주양	061-722-8141	40
	조례초교	전남	순천시 조례동 487-2	최선숙	061-723-3779	30
	팔마초교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21	이정화	061-725-0491	39
	용당초교	전남	순천시 용당동 607-1	강은주	061-753-4611	32
	동초교	전북	정읍시 장명동 29	장경아	063-533-4530	30
	동신초교	전북	전주시 덕진 우아3 743-149	정금순	063-241-8510	41
	서원초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33	김민주	063-225-2884	40
	풍남초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507	이선희	063-284-5730	40
	동북초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가 39-13	모여라	063-271-1911	40
충청	온천초교	충남	아산시 온천1동 307-1번지	김금숙	041-533-4688	41
	청수초교	충남	아산시 청수동 235번지	마영아	041-552-5933	92
	일봉초교	충남	천안시 다가동 380-8번지	김영선	041-574-6495	90
	구성초교	충남	천안시 구성동 388-71번지	김경희	041-561-2422	30
	남산초교	충북	충주시 용산동 2109번지	이은주	043-854-5268	40
	남신초교	충북	음성군 읍내리 757-6	김낭경	043-872-0490	30
	감곡초교	충북	음성군 감곡리 오황 510	김은희	043-882-6938	75
	우암초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137	박선정	043-224-3974	34
	복대초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709-4	권미선	043-265-8339	90
	분평초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56-3	이영숙	043-295-3225	40

번호	학교명	지역	주소	담당 교사	연락처	교육 인원
	금천초교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13-1	조경희	043-256-5002	112
	남한강초교	충북	충주시 문화동 1942번지	지현정	043-855-1450	40
	교현초교	충북	충주시 교현동 339번지	조도은	043-843-8421	43
	신백초교	충북	제천시 신백동 212-7번지	권선미	043-647-0659	120
총계	113개교					
	5,015명					

농어촌 벽지 초등학교 정보화 무료 교육 명단

지역	학교명	PC 보유량	주소	연락처	담당 교사
인천	연평 초등	20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437	032-831-4159	이충효
	선원 초등	18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100	032-934-5720	임승환
	용유 초등	20	인천시 중구 남북동 586	032-888-0512	강신도
	운서 초등	20	인천시 중구 운서동 17	032-886-5095	황남종
	영종 초등	20	인천시 중구 중산동 1347-1	032-886-4500	김용성
	백령 초등	16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2리 1047	032-836-1760	최광선
	송해 초등	14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솔정리 640	032-934-4375	한선봉
	대월 초등	12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1239번지	032-933-2955	유원종
강원	주문초교 삼덕분교	17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 551	033-661-5292	장영철
	화계초교 대룡분교	17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2리 455	033-433-5198	송정은
	귀래초교 귀운분교	16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귀래1리 1343	033-765-4121	한종남
	철원초교 월하분교	16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월하리 66	033-455-6343	김도행
	임계초교 문래분교	14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골지리	033-562-6768	박재호
	상승초교 노동분교	14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1리 504-2	033-441-6209	유승희
	방산초교 오미분교	13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오미리 237	033-481-5092	이은용
	상평초교 현서분교	13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74-1	033-673-8764	이정우
	서석초교 청량분교	13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481-1	033-433-4183	김기종
	거진초교 송정분교	12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송정리 139	033-682-2100	탁길원
	임당초교 팔랑분교	12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1리 1289-3	033-481-0104	박정섭
	봉래초교 거운분교	1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529-8	033-375-0709	정성규

지역	학교명	PC 보유량	주소	연락처	담당 교사
	지촌초교 지암분교	12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033-243-1012	정연동
	창촌초교 운두분교	12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4리 413	033-435-0993	홍명선
	서석초교 항곡분교	12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수라2리 398-3	033-435-4184	이현미
	왕산초교 고단분교	11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254	033-647-3161	맹영복
	광산초교 홀리분교	11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홀1리 55	033-681-2704	박승룡
	오저초교 풍곡분교	11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617	033-572-7065	안병오
	근덕초교 마읍분교	11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증마읍리 102	033-572-3601	홍준식
	봉래초교 문산분교	11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1리	033-375-0828	정용수
	부평초교 신월분교	11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월리 244	033-461-6195	김상현
	인제초교 가리산분교	1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033-463-2206	최미희
	정선초교 광하분교	11	강원도 정건군 정선읍 광하1리 552	033-562-4789	문일기
	예미초교 고성분교	11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고성2리 812	033-378-0858	지근석
	정선초교 가수분교	1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193	033-562-4792	이동환
	안미초교 선애분교	11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2리 815-1	033-332-8507	김미경
	진부초교 월정분교	11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103-2	033-332-6559	김진섭
	내촌초교 와야분교	11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왕2리 881	033-433-3076	박종헌
	속초초교 월운분교	11	강원도 홍천군 동면 월운리 334-2	033-433-6079	장상기
	화천초교 논미분교	11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논미1리	033-442-2809	방석웅
	옥계초교 남양분교	10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524-4	033-535-6503	최돈철
	하장초교 갈전분교	10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365	033-552-0087	김병직
	기린초교 방동분교	10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510	033-463-5314	최수호
	원통초교 신덕분교	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779-1	033-463-2771	이성욱
	남선초교 남창분교	10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220-2	033-591-1228	전칠표
	여량초교 구절분교	10	강원도 정선군 북면 구절리 276	033-562-5004	박승만
	임계초교 화성분교	10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3리 261	033-562-6368	류지춘
	철암초교 백산분교	10	강원도 태백시 백산동 89 17/3	033-553-2392	정영광
	기문초교 신기분교	10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190	033-332-7713	한영호
	화계초교 성동분교	10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2리 642-5	033-433-5195	박경호
	유현초교 금대분교	10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 204	033-345-0096	김남헌
	호산초교 노실분교	8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1리 142-2	033-572-5311	한재열
	하장초교 역둔분교	8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역둔리 26-3	033-552-0085	주영석

지역	학교명	PC 보유량	주소	연락처	담당 교사
	임계초교 도전분교	8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도전1리 734-2	033-562-6369	홍완식
	율전초교 방내분교	8	강원도 홍천군 내면 방내1리 793-2	033-435-0763	김중일
	강림초교 부곡분교	8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부곡2리 617	033-342-7094	원진연
	공근초교 공명분교	8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공근리 43	033-342-3120	이건택
	둔내초교 영호분교	8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영랑리 375	033-343-1077	고은자
	안흥초교 덕천분교	8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2리 588	033-342-4221	박영서
경기	율길초교	20	경기 가평군 상면 율길리 454	031-585-0585	김재만
	초월초교	20	경기 광주군 초월면 신월리 455	031-764-4480	이종강
	월곶초교	20	경기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84-1	031-987-7930	이강수
	마송초교	20	경기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1-2	031-987-1067	김용회
	서암초교	20	경기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407	031-981-5663	서재민
	옹정초교	20	경기 김포시 통진면 옹정2리 산77-10	031-987-1861	김영배
	대부초교	20	경기 안산시 대부북동 180	032-886-3600	조성광
	대남초교	20	경기 안산시 대부남동 1066-123	032-886-0087	라기영
	대동초교	20	경기 안산시 동동 838	031-886-0071	나익주
	군남초교	20	경기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475	031-834-2365	유진현
	대광초교	20	경기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245-1	031-832-4520	최덕기
	상리초교	20	경기 연천군 연천읍 상 1리 161	031-834-1432	유훈균
	검산초교	20	경기 파주시 검산동 546	031-941-3172	이성용
	교하초교	20	경기 파주시 교하면 교하리	031-941-4706	최영상
	청식초교	20	경기 파주시 교하면 다율리 491	031-941-4746	최병윤
	지산초교	20	경기 파주시 교하면 와동리 241	031-942-6743	유혜형
	마정초교	20	경기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540	031-952-2839	김중기
	문산동초교	20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3리 788	031-952-2677	채양석
	월롱초교	20	경기 파주시 월릉면 덕은리 303	031-944-2597	황국현
	마지초교	20	경기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60-4	031-959-4102	박인배
	갈현초교	20	경기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821	031-945-9394	최영재
	탄현초교	20	경기 파주시 탄현면 축현 2리 489	031-942-9016	임관용
	삼정초교	20	경기 포천군 신북면 삼정리 405	031-535-6474	조백형
	활초초교	20	경기 화성군 남양면 안석리 232-1	031-356-2020	송왕룡
	계정초교	18	경기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1000	031-773-1171	양흥석

지역	학교명	PC 보유량	주소	연락처	담당 교사
	장명초교 장일분교	15	경기 화성군 장안면 장안 8리 1075	031-358-1140	박상철
	미곡초교	13	경기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443	031-674-0306	이언화
	내기초교 신영분교	13	경기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269-1	031-681-3241	노은구
	원곡초교 성은분교	12	경기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35	031-656-6967	최연정
	일신초교	10	경기 양평군 지제면 일신리 674	031-773-7009	박현회
	전곡초교 적동분교	10	경기 연천군 늘옥리 111	031-832-2192	백경석
	서신초교 제부분교	10	경기 화성군 서신면 제부리 산23	031-357-2150	김학선
	서종초교 정배분교	8	경기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031-773-6012	최동복
	양동초교 매월분교	8	경기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 200	031-773-1007	김종화
	점동초교 안평분교	8	경기 여주군 점동면 장안리 480-3	031-886-6743	서효종
	연천초교 고문분교	8	경기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59	031-834-1433	김준회
경북	가은초교	20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왕릉리 292	054-571-6280	정해철
	동로초교	20	경북 문경시 동로면 노은리 155-2	054-553-8234	신윤호
	동성초교	20	경북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 595	054-571-1717	김경숙
	용흥초교	20	경북 문경시 문경읍 갈평리 563	054-571-2504	도기업
	문경초교	20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리 468	054-572-1092	이상수
	신기초교	20	경북 문경시 신기동 67-3	054-553-4128	윤희구
	석포초교	20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376-8	054-672-6007	김대년
	모동초교	20	상주시 모동면 금천리 6	054-510-8198	박창욱
	모서초교	20	상주시 모서면 삼포리 202	054-533-2184	장상진
	중모초교	20	상주시 조동면 신천리 128	054-533-4084	신훈식
	화동초교	20	상주시 화동면 이소리 490	054-533-9720	최춘석
	가천초교	20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574	054-932-4017	장우석
	울릉초교	20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32-11	054-791-0691	김정수
	저동초교	20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440	054-791-2279	최환석
	죽장초교	20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730-1	054-243-3101	천진영
	농안초교	19	경북 문경시 농암면 농암2리 207	054-571-2288	박희묵
	소천초교	18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651	054-672-7414	이오영
	공검초교	16	경북 상주시 공검면 동막리 69	054-541-1712	윤순희
	우곡초교	15	경북 고령군 우곡면 연리 329	054-955-4476	서춘자
	도원초교 선남동부분교	15	경북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 933-1	054-932-0809	김미숙

지역	학교명	PC 보유량	주소	연락처	담당 교사
	산성초교	14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868	054-382-3016	강영자
	서벽초교	14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 1리	054-672-4002	김재인
	수비초교	14	경북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505	054-682-9007	위정민
	화북초교	13	경북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 110-1	054-540-6432	김기윤
	부항초교	12	경북 김천시 부항면 월곡리 147	054-437-2177	오재만
	당포초교	11	경북 문경시 문경읍 당포리 652	054-572-0211	김형환
	지방초교	11	경북 성주군 월항면 지방리 536	054-933-8716	김정환
	석산초교	9	경북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548	054-383-0220	이재랑
	삼근초교 왕피분교	9	경북 울진군 서면 왕피리 594	054-782-9190	이찬우
경남	명사초교	8	경남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311	055-633-1007	정윤도
	창호초교	8	경남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761	055-633-9608	민영종
	오비초교	8	경남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657-1	055-634-4249	정성철
	칠 천초교	8	경남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445-1	055-632-2587	권옥현
	신원초교	8	경남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199-4	055-942-8006	박근영
	용산초교	8	경남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33	055-337-9055	유의식
	창선초교	8	경남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265	055-867-3003	차차훈
	하천초교	8	경남 창원시 북면 하천리 944	055-298-3577	최재극
	원량초교	8	경남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830	055-642-5009	유영갑
	갈육초교	8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376	055-882-2306	이규자
전북	구천초교	13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314	063-322-3065	윤하용
전남	금산초교	20	전남 고흥군 금산며 대흥리 385	061-843-8043	심성식
	영등초교	20	전남 보성군 벌교읍 영등리 729	061-857-1636	정현숙
	송광초교	2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766	061-754-3507	한길승
	비금초교	20	전남 신안군 비금면 신원리 96-1	061-275-5262	한명희
	안창초교	20	전남 신안군 안좌면 대리 756	061-279-4263	임동국
	안좌초교	20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014	061-279-4020	박현순
	압해서초교	20	전남 신안군 압해면 대천리 668	061-271-9705	조수일
	압해초교	20	전남 신안군 압해면 동서리	061-271-0047	양은숙
	압해동초교	20	전남 신안군 압해면 신장리 518	061-271-0704	이의희
	임자초교	20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348	061-275-6082	김혜자
	팔금초교	20	전남 신안군 팔금면 읍리 700	061-271-1020	최복숙

지역	학교명	PC 보유량	주소	연락처	담당 교사
	흑산초교	20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 477	061-275-9058	홍영재
	화태초교	20	전남 여수시 남면 화태리 313	061-665-2143	설귀원
	돌산중앙초교	20	전남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995	061-644-3079	박전춘
	고금초교	20	전남 완도군 고금면 덕암리 644	061-554-1669	이철호
	금일초교	20	전남 완도군 금일읍 산구리 680	061-553-2001	이수경
	금일동초교	20	전남 완도군 금일읍 월송리 250	061-552-9940	이현석
	노화중앙초교	20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674	061-553-4667	한창수
	소안초교	20	전남 완도군 소안면 비자리 940	061-553-7251	송진욱
	신지초교	20	전남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850	061-552-7011	조중석
	지도초교	20	전남 진도군 신안군 지도면 읍내리 산93	061-275-0008	고용희
	사평초교	20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리 940-1	061-372-6006	서영진
	동면초교	20	전남 화순군 동면 백용리 109-1	061-372-8040	박봉수
	다압초교	19	전남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106	061-772-4087	최은희
	자은초교	19	전남 신안군 자은면 구영리 44	061-271-8040	박준희
	경호초교	19	전남 여수시 경호동 585	061-665-1220	정종혁
	돌산초교	19	전남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195	061-644-1392	모승주
	약산초교	19	전남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931	061-553-8323	석종우
	아산초교	20	전남 화순군 북면 이천 56	061-372-5092	빙기조
	봉래초교	18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655	061-833-6384	박선례
	노화초교	18	전남 완도군 노화읍 도청리 324	061-553-4903	박미영
	목사동초교	17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138	061-362-1534	김현숙
	평사초교	17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928	061-644-3900	장성재
	진월남초교 오신분교	17	전남 진월면 오사리 277	061-772-2064	정영훈
	남면초교 인암분교	16	전남 담양군 남면 인암리 238	061-382-1101	이상찬
	봉덕초교	16	전남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1623	061-644-6721	이희중
	안일초교	16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541	061-686-2971	안희정
	염산초교 신성분교	16	전남 영광군 염산면 신상리 255	061-352-9361	정동순
	노화동초교	16	전남 완도군 노화읍 구석리 925	061-553-4907	김성주
	보길초교	16	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202	061-553-6200	전동렬
	암태초교	15	전남 신안군 암태면 단고리 266	061-271-1540	김광식
	이서초교	15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282	061-372-9064	박소영

지역	학교명	PC 보유량	주소	연락처	담당 교사
	이양초교	15	전남 화순군 이양면 이양리 317	061-372-3044	이영호
	죽곡초교	14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120	061-362-4523	윤란영
	중동초교	14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631	061-783-1653	조태순
	동강초교 곡강분교	14	전남 나주시 동강면 양지리 437	061-335-2066	곽기범
	승주초교 죽학분교	14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799	061-752-0297	김종필
	월등초교	14	전남 순천시 월등면 대평리 458	061-754-1104	양학규
	황전북초교	14	전남 순천시 황전면 대치리 435	061-755-7001	유승재
	돌산초교 금봉분교	14	전남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220	061-644-0024	김도훈
	돌산초교 대신분교	14	전남 여수시 돌산읍 신복 730	061-644-0043	기석도
	거문초교	14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136	061-666-8026	김칠용
	소라초교 신흥분교	14	전남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325	061-683-8117	신제성
	오산초교 향동분교	14	전남 진도군 고군면 향동리 1524	061-542-0676	곽명희
	의신초교 명금분교	14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정리 551	061-543-4401	박동철
	의동초교	14	전남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102	061-544-1402	박병관
	조도초교	14	전남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457	061-542-5014	이영선
	청산초교	14	전남 청산면 도청리 988	061-552-8524	박정원
	백양초교	13	전남 고흥군 동일면 백양리 834	061-833-7024	홍용기
	도초초교	13	전남 신안군 도초면 수항리 620	061-275-2177	김애란
	금당초교	13	전남 완도군 금당면 육산리 260-1	061-843-9756	오승필
	노화북초교	13	전남 완도군 노화읍 신양리 452-2	061-553-4904	강준흥
	화원초교 화원북분교	13	전남 해남군 화원면 청룡리 235	061-532-0131	정인수
	회천동초교	12	전남 보성군 회천면 서당리 659	061-852-8012	김성현
	흑산초교 홍도분교	12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1구	061-246-3724	김제연
	동복초교	12	전남 화순군 동복면 칠정리 702	061-372-2012	최은석
	녹동초교 소록도분교	11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20	061-844-0371	조을종
	점암초교 신안분교	11	전남 고흥군 점암면 신안리 205	061-832-9671	유용운
	점암초교 화계분교	11	전남 고흥군 점암면 화계리 263	061-832-8582	서현주
	장산초교	11	전남 신안군 장산면 대리 93-1	061-271-2546	정경인
	송흥초교	11	전남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158	061-673-2348	김성렬
	보길동초교	11	전남 완도군 보길면 중통리 379-1	061-553-6202	정찬홍
	소안초교 진산분교	11	전남 완도군 소안면 진산리 843	061-553-7521	김일

지역	학교명	PC 보유량	주소	연락처	담당 교사
	장평초교 임리분교	11	전남 장흥군 장평면 임리 341	061-862-4164	고기열
	신의초교 상태분교	10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268	061-271-6504	박상연
	임자남초교	10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2825	061-279-7500	김윤필
	지도초교 신광분교	10	전남 신안군 지도읍 탄동리 52-2	061-279-3004	조석만
	하의초교	10	전남 신안군 하의면 웅곡리 166-2	061-275-4021	김성철
	율촌초교 산수분교	10	전남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642	061-682-7218	오강수
	고금초교 덕동분교	10	전남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483	061-553-0349	조영진
	청풍초교	10	전남 화순군 청풍면 차리 270	061-372-9544	박춘하
	금산제일초교	9	전남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1240	061-843-7875	이경숙
	영남초교	9	전남 고흥군 영남면 양사리 528	061-832-8837	조계원
	진상초교 황죽분교	9	전남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250-18	061-772-1314	오헌택
	도초서초교	9	전남 신안군 도초면 지남리 1125	061-275-2179	왕길오
	거문초교 서도분교	9	전남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25	061-666-8026	서일영
	소라초교 사곡분교	9	전남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136	061-683-8117	신제성
	소라초교 소라남분교	9	전남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604-2	061-683-8117	신제성
	상암초교 신덕분교	9	전남 여숫시 신덕동 6	061-686-4048	최석정
	신지초교 송곡분교	9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540	061-552-7302	이종석
	청산초교 동분교	9	전남 청산면 부흥리 590	061-552-8524	이명자
	손불초교 용암분교	9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죽암리 709	061-322-4164	주승규
	산이선초교 금호분교	9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528	061-246-5009	장석우
	아산초교 서유분교	9	전남 화순군 북면 서유 526	061-372-5101	김숙
	한천초교	9	전남 화순군 한천면 한계리 193	061-373-0022	송은섭
충남	유규초교 입석분교	20	충남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444-1	041-841-6837	임병수
	성주초교	20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119	041-934-3482	이종권
	외연도초교	20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97	041-936-5004	윤종학
	광명초교	20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756-3	041-936-6011	김기반
	청라초교	20	충남 보령시 청라면 나원리 916	041-932-8038	윤재명
	명지초교 삼길분교	20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3구	041-664-9287	이정민
	동덕초교	20	충남 아산시 탕정면 등산리 423	041-533-3812	손영만
	위례초교	20	충남 천안시 북면 납안리 88	041-568-3084	김병란
	안흥초교 신진도분교	19	충남 태안군 조흥면 신진도분교 85	041-674-9322	김낙인

지역	학교명	PC 보유량	주소	연락처	담당 교사
	이원초교 관동분교	18	충남 태안군 이원면 관리	041-672-8067	김대호
	삽시초교	15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21-1	041-932-3895	이은규
	신당초교	13	충남 홍성군 홍성읍 서부면 남당리 664	041-632-8150	김영돈
	창기초교 황도분교	11	충남 태안군 안면읍 황도리 13	041-673-5573	유재필
	대룡초교	10	충남 공주시 신풍면 대룡리 407	041-841-1960	최원경
	고대초교	10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내 고대도1073	041-932-3898	박창화
	지티초교	10	충남 부여군 내산면 지티리 139	041-833-4190	나목수
	장곡초교 오서분교	10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28	041-642-5106	복기헌
제주	가파초등	17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가파리 464	064-794-7062	나승호
	연평초등	17	제주도 북제주군 우도면 서광리 1442	064-783-0465	김병철
	추자초등	16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대서리 31	064-742-8431	고범석
	추자초등 신양분교	12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신양리 486	064-742-8421	고용석
	함덕초등 선인분교	9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2리1947-15	064-783-8612	고난향

문화 · 예술/학술/체육 사업 지원

협찬명	협찬사	분야
한국대학연극패 연합 '연극오름	한국대학연극패 연합 '연극오름'	문화
High Speed Network Workshop 2001	HSN2001	학술
희망의 꽃씨나누기 이벤트 협찬	월간 낮은 울타리	문화
CDMA Development Group Website	CDG	학술
CBS포항방송주최 국립합창단 초청 춘계 대음악회	포항 CBS	문화
홍종화 바이올린 독주회	숙대음대, 프로아트매니지먼트	문화
'2001모바일벤처포럼'	서울경제신문	학술
극단 '사조'의 연극 "불타는 소파" 공연	극단 사조	문화
제9회 화개장터 벚꽃축제	화개면 청년회,하동군청	문화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K-TV 우수시민영상물 공모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문화
EBS 디지털학습페어 2001 행사	EBS	교육
한국정보과학회 '제28회 임시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한국정보과학회	학술
인천일보주최 '인천국제공항 개항기념 제1회 인천 하프마라톤 대회'	인천일보	체육

협찬명	협찬사	분야
문화일보주최 '2001시낭송회' 행사	문화일보	문화
한국경영과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경영과학회	학술
제2회 전주 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문화
'사이버 건전문화 캠페인'	내외경제신문	교육
통신정보 합동학술대회(JCCI2001)	한국통신학회	학술
시민방송 창립대회	재단법인 시민방송 설립준비위원회	언론
취운 진학종 선생 일본 서예전	진학종	문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극회 '또아리' 정기공연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극회	문화
2001 통신망 운용관리 학술대회 'KNOM2001'	한국통신학회	학술
2001년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학술
제12회 세계일보 음악콩쿠르	세계일보	문화
상록수문화사랑회 '2001 안산음악축제'	상록수문화사랑회	문화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01 춘계학술발표대회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학술
호남오페라단 제15회 정기공연"유쾌한 아낙네" 공연	호남오페라단	문화
서울특별시립 중랑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축제	시립 중랑청소년수련관	문화
필리핀 협의회 103주년 독립기념회	필리핀 협회	일반
제주도내 초등학교 인터넷 경진 대회	제주도 체신청	교육
전국 휠체어 농구 대회	한국휠체어농구연맹	공공체육
제38회 전국대학농구연맹전	한국대학농구연맹	체육
제2회 청강 웹광고 제작 경진 대회	청강문화산업대학	IT
하성호와 서울팝스오케스트라 13주년 기념 음악회	서울팝스오케스트라	문화
한국통신학회 2001년 하계종합 학술발표회	한국통신학회	학술
동아시아 연구소 심포지움	동아시아 연구소	학술
한국방송학회 2001년도 하계 종합학술발표회	한국방송학회	학술
대한전자공학회 하계학술 세미나	대한전자공학회	학술
제51회 개천예술제	개천예술제제전위원회	문화
Asseap Midterm Conference 2001	한국공학교육기술학회장	학술
2001년판 한국 정보산업 민간백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학술
보스턴팝스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문화일보	문화
Wireless & Mobile Communication 2001	매일경제	IT
박진아 첼로 독주회	음악저널	문화

협찬명	협찬사	분야
창의성 IT 아이디어 작품 공모대전	광운대학교	IT
휴대폰 예절 캠페인	CBS	공공
2001 부산 정보통신 과학 축전	한국우주정보소년단	IT
나이키 길거리 농구 대회	나이키	체육
제2회 서울국제 요리 축제	파이넨셜 뉴스	문화
2001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 음악 특별 공연	꾸러기예술단	문화
제55회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조선일보	체육
국립발레단 스파르타쿠스 발레	국립발레단	문화
제13회 거창국제연극제	사단법인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문화
대구-경북 척수장애인 하계캠프 및 바다 축제	대구-경북 척수장애인 협회	공공
헝거리안 솔리스트 챔버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퍼포먼스코리아	문화
HPAIR 국제컨퍼런스	HPAIR KOREA	학술
디지털 아트 네트워크 코리아	정보통신부, 인포아트코리아	IT
제1회 한중연예문화의 밤	스포츠서울	문화
UKC2001 학술 대회	KSEA	학술
2001 만주민족사적지 답사	다물민족연구소	일반
제19회 신한동해오픈 골프대회	신한은행	체육
한중 청소년 문화축제	흥사단	문화
제6회 SK엔크린 Invitational 여자골프선수권 대회	SK㈜	체육
2001 SUMMER Latin Dance Festival	워커힐	문화
제12차 대기보전 세계대회 및 전시회	대기보전세계대회조직위원회	학술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문화
한국무선인터넷 표준화 포럼 창립 총회	한국 무선인터넷 표준화 포럼	IT
제4회 국민-한세 디자인 실기대회	국민일보	문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 초청 실내악의 밤	경향신문	문화
2001 동아 경주 오픈 마라톤	동아일보	체육
오페라 안중근	고려문화예술	문화
록 뮤지컬 지하철 1호선	극단 학전	문화
2001 전주 세계소리 축제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문화
사할린 동포 영구귀국자 무료검진 및 한가위 위안 행사		공공
소충사선문화제		문화

협찬명	협찬사	분야
휠체어농구연맹전		공공체육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주최 2001 세계무용축제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문화
KOREA SUPER EXPO 2001	한국무역진흥협회	일반
가을밤 콘서트		문화
Women's Gala Concert	한국여성재단	문화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국민음악회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문화
한국통신학회 2001년도 추계 종합학술발표회	한국통신학회	IT
한국경영정보학회 2001년도 경영정보계열 공동 국제 학술 대회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
중국경제대해부 특집시리즈 및 국제 학술 심포지움	한겨레신문사	학술
부산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 성공 개최 기원 행사	부산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일반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캠페인	경찰청 교통안전과	공공
e-러닝 코리아 2001 전시회	국회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	IT
제11회 충무기전국휠체어농구 대회	대전충남 장애인재활협회	공공체육
2001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민을 위한 종로 문화 예술의 밤	종로구청	문화
제1회 CDMA Global Roming Symposium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
한국 인터넷운영워크샵 2001	한국인터넷정보센터	IT
엄홍길과 함께하는 히말라야 트레킹	경향신문사	체육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1 추계학술대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학술
해외동포사회 풍물놀이 보급을 을 위한 행사	한민족언어문화진흥회	문화
제2회 서울넷 페스티벌	서울넷페스티벌 준비위원회	IT
서울팝스오케스트라 후원의 밤	서울팝스오케스트라	문화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한국국제경제학회	학술
IEEE PRDC 2001 국제학술회의	IEEE	학술
전국장애인창업박람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공공
이동통신3사 무선인터넷 경연 대회	매일경제	IT
전국 시낭송 대회	대전일보	문화
국제 사진대전	대전일보	문
제4회 가릉빈가 합창단 정기연주회	불교방송	문화

2001사회공헌활동백서

발 행 처: SK텔레콤 사회공헌활동 사무국
발 행 일: 2002년 6월 30일
발 행 인: 표문수 사장
편집위원: 신영철 상무
제　　작: SK텔레콤 홍보실